

Law SCHOOL **창** O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7. NOV + DEC



11 / 12



KNU 경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세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만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NOW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닥치지 않았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톨스토이
(Leo Tolstoy, 1828-1910)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7
11 + 12



발행일 2017년 11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이형규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이너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4 로스쿨 탐방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석모 원장
- 08 파워 인터뷰
희망을 만드는 법 박한희 변호사
- 12 SPECIAL REPORT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성명서
- 16 언론 속 로스쿨
- 20 숫자로 보는 로스쿨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 21 BOOK
- 22 로스쿨 오피니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
- 24 행복 로스쿨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원 학생
- 26 특별기고
20대 국회 김성수의원실 이아영 변호사
- 28 로스쿨 핫이슈
- 32 로스쿨 특파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창훈 학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우석 학생
- 36 로스쿨 생활백서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40 건강멘토링
- 42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 책 읽어주는 변호사
- 50 문화가 산책
- 52 협의회 소식
- 54 OUT CAMPUS / LAW QUIZ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은 한 학년이 40명뿐인 소규모 법전원에 속하지만, 지난 1기~5기 졸업생 취업률이 100%에 달하는 등 우수 인재 양성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홍석모 원장을 찾아 '작지만 강한 법전원'으로 평가받는 강원대학교 법전원만의 저력에 대해 들어보았다. editor. 박소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석모 원장

“강원대학교 법전원 졸업생, 강원도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도세력으로 성장할 것”



Q.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자평한다면?

A. 내년이면 법전원을 개원한지 10주년이 된다. 초창기에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 어려움도 많았고, 혼란도 많았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시도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성원의 노력에 힘입어 이제는 상당히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강원대 법전원에 대한 몇 가지 자랑을 하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장학금 제도이다. 강원도 및 도내 지자체, 그리고 도내 기업의 지원으로 전국 최고의 장학금 지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100% 지급하다가 차츰 낮아져서 지금은 46% 정도의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총 120명의 학생 중 55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액수이다. 그리고 120명의 학생 중 1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전원 전용 기숙사도 자랑거리이다. 기숙사, 식당, 강의동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학생들이 매우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다. 교수 1인당 학생 비율도 1:4로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특성화 분야(환경법)를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법전원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약 력

- 전 공 _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 학 력 _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MBA
Syracuse University Law School, JD
- 경 력 _ 미국 뉴욕주 변호사
Enactus (대학생 국제봉사단체) 한국 대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지리적 위치와 저렴한 등록금도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법전원의 특성 상 학생들간의 분위기가 매우 경쟁적이고 비협조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강원대 법전원의 경우 학생들간에 매우 협조적이고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어 다른 법전원 학생들이 부러워한다고 들었다. 이러한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머지 않은 장래에 모두가 오고 싶어 하는 법전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Q. 강원대학교 법전원에서는 어떤 모습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 강원대학교 법전원은 강원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실사구시(實事求是)가 담고 있는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5가지 자질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자질을 5 BEST(Knowledge, Skill, Ethics, Sense of Duty, Globalization)라고 정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는 2009년에 설정한 것이고, 대부분의 법전원이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아 이러한 목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법조계가 보수적이고 사회 변화에 가장 느리게 반응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법조인이 사라질 확률이 40%가 넘는다는 예측이 나와 있는 현실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법조 분야에 창의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인공지능으로는 할 수 없는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Q. 특성화 과목을 '환경법'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강원도가 우리나라 청정환경의 보고라는 지역적 특성 및 강원대학교의 환경 관련 학과가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원대 법전원이 환경법을 특성화 과목으로 정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환경법을 특성화 과목으로 정하게 되었다.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되지만 공정거래와 환경 분야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 법률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강원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환경법으로 특화된 변호사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현재 환경법 담당 교수가 세 명이고, 총 13개의 환경법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미국에서 환경법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루이스앤클락 로스쿨과 협약을 체결하고 여름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방문하거나 미국에서 교수를 초빙하여 비교환경법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환경법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환경법 우수자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서를 교부하고, 환경부 등 정부부처, 로펌, 환경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졸업생들 중에 이미 환경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법 분야에서 강원대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

Q. 강원대학교 법전원 재학생·졸업생들이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A. 재학생들은 리걸클리닉을 통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과거 7년간 460여건의 온라인 법률상담, 10여건의 무변촌 법률상담, 21건의 공익소송, 42건의 무료법률강좌, 6건의 청소년 리걸클리닉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법률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들도 33명이 강원도에서 개업 또는 취업을 하였고, 이들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은 편이라 강원도내 법률 서비스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10년 정도 후에는 우리 졸업생들이 강원도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실질적

인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도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

Q. 강원대학교 법전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현재까지(1기~5기) 100%에 달한다. 이렇게 취업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인가?

A. 법전원 졸업생들의 취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비하면 취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취업을 한다고 해도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취업의 질이 하락한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는 변호사의 역할이 주로 송무 위주였고, 송무 분야에서만 본다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취업 여건도 나빠졌다. 그러나 점점 복잡다기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변호사의 역할도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송무 위주의 역할에서 벗어나 법률 자문이나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서 사회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업이 어렵지만 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만 하면 바로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면 100% 취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다른 법전원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강원대학교 법전원의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A. 우리학교의 장학금 지급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에는 100%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 후 조금씩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46% 정도의 지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전국 법전원에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30%의 지급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120명의 학생 중 55명이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반액 장학금 등을 포함하면 장학금 대상 학생 수는 더 늘어난다. 장학금 재원은 주로 강원도 및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최근에는 더존ICT 그룹에서도 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인간적으로도 성숙한 학생을 선발하여 법전원 내의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유지하고, 졸업 후에도 개인의 영달만을 쫓지 않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다.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한 가지 바람직한 현상은,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 사회로 진출한 졸업생들이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고 그 혜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후배들을 위해 5년간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을 후원하기로 한 졸업생도 있고, 자신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 지자체에 1,000만원을 다시 장학금으로 쾌척한 졸업생도 있다. 또한 춘천시에서 주도하는 시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활동에도 우리 졸업생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장학금 환류 시스템이 정착되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장학금을 환원하는 졸업생들도 본인이 작게나마 사회에 기여한다는 뿌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Q. 지난 2016년 국립대 법전원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법전원마다 등록금 문제로 고민이 많을 텐데, 이러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법전원 등록금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과거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는 비용이 거의 안 들었다고 하는 편견이 그 밑에 깔려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 아주 과거에는 좀 다른 상황이었지만, 최근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도 들어야 하고, 고시원 비용도 필요하고, 그러한 비용을 5년 이상 기약 없이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모든 비용을 다 고려하면 법전원 3년의 비용이 그다지 큰 비용이 아니며, 더군다나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6,000명의 법전원 학생 중 30%에 해당하는 1,800명의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로스쿨은 돈스쿨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에 굴복하여 로스쿨의 등록금을 낮추려고만 하는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협이나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법전원 평가 기준을 맞추려면 시설 및 교수 충원 측면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등록금을 낮추려고만 하고 장학금 지급률도 높이라고 요구만 한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Q. 한 법전원을 이끌어가는 원장으로서, 최대의 고민은 무엇인가?

A. 법전원장으로서 고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학교 내에서는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합격률 향상에 대한 고민, 5년마다 시행되는 법전원 평가 준비, 보다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시, 장학금 확보를 위한 외부기관 접촉,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사항 등등의 고민이 있고, 학교 외적으로는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여론에 대한 대응, 국회/법무부/교육부/변협으로부터의 갖가지 요구와 간섭 등이 일상적 고민거리이다. 그러한 일상적인 고민을 제외하고 최대의 고민이라면 어떻게 하면 강원대 법전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업그레이드는 강의의 질 향상, 학생 수준의 향상 등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것저것 시도는해보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해 늘 마음 한편이 쫓기는 기분이다.

Q. 법전원 입학 전형이 한창 진행 중이다. 어떤 학생들이 강원대학교 법전원에 입학했으면 하는가?

A. 내가 경험한 학생들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주변의 강요에 못 이겨서 혹은 법조인이 본인의 길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법전원에 진학한 학생들이다. 몇 년 전, 한 학생으로부터 “교수님, 저는 별로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안타까움이 아직도 생각난다. 아주 열심히 해도 이겨내기 쉽지 않은 것이 법전원의 학업인데,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와 열정이 없는 학생들은 이 학업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몸도 지치고 마음고생만 하면서 3년이라는 인생의 황금기를 허비하게 된다. 반면에 본인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은 3년간 공부하면서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낸다.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이러한 열정과 발전 가능성을 갖춘 학생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내가 가장 원하는 학생은 법조인이 본인의 길이라는 확신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 난관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본인의 꿈을 실현해 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이다. 물론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인간적으로도 성숙한 학생을 선발하여 법전원 내의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유지하고, 졸업 후에도 개인의 영달만을 쫓지 않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다. **창**

을 초, 대한민국 언론은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의 탄생에 주목했다. 하지만 박한희 변호사는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다소 불편하다고 고백한다. 본인은 최초로 커밍아웃을 한 변호사일 뿐,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차별을 넘어 인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박한희 변호사를 만났다. editor. 박소희

희망을 만드는 법 박한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다양성이 존중 받고 축복이 되기를”



Q. 포항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이과 계통에 소질이 있었던 모양이다.

A.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해서 레고와 과학상자를 가지고 놀았다. 심심할 때는 SF소설이나 과학책을 찾아 읽었고, 초등학교 때에는 자연부 실험반장을 하며 과학경시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의 관심과 취미가 자연스럽게 진로로 연결되어 포항공대에 진학해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당시에는 당연히 로봇을 연구하는 석·박사로 진로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Q. 그러다 불현 듯 건설회사에 입사했는데 행보에 변화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A.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처음 정체성을 자각했던 건 중학생 때였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였다. 2인 1실을 사용하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지쳤었고 반년 정도 우울증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학교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S사 엔지니어링 기계구매팀이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자회견 발언.

Q. 회사원에서 법조인이 되고자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회사 생활이라는 게 정말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특히 당시에는 정장을 갖춰 입은 ‘남자’의 모습으로 회사를 다녀야 했는데, 2년 정도 그렇게 생활하다보니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 이렇게 10년, 20년 회사 생활을 해야 할 텐데 버티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진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안정적으로 살려면 전문직(자격증)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나와 같은 트랜스젠더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로 선택지가 좁혀졌는데, 적성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변호사가 더 잘 맞을 것 같아 로스쿨에 진학하게 됐다.

Q. 로스쿨에서의 3년은 어땠나?

A. 다시 학교에 다녀서 좋았다. 정장이 아닌 사복을 입을 수 있어서 좋았고,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라서 적응도 빠르게 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이었는데,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겼다. 그렇다고 고민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퇴사하면서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로스

희망법은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로 2012년 6명의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수임료를 받지 않고 오로지 개인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는 단체이며, 정부 및 대기업의 지원도 받지 않고 있다.

쿨 1학년 때에는 꼭 ‘머리 긴 남학생’ 같았다. 이 상태로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되면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커밍아웃을 결심했고, 2학년 2학기 무렵 실행에 옮겼다. 다행히 동기들은 편견을 갖지 않고 예전과 다름없이 대해주었다.

Q. 공익변호사로서 첫걸음을 떼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처음에는 막연하게 공익인권변호사를 꿈꿨다. 그러다 우연히 트랜스젠더 성별 지정 허가를 받아낸 사례를 통해 희망법의 공익활동에 대해서 알게 됐고, 커밍아웃을 하기 전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활동에 흥미가 생겼다. 그때부터 인권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공익인권변호사’라는 꿈이 더욱 확고해졌다. 로스쿨에 진학한 목적 자체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공익인권변호사’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웃음).

Q. 희망법은 어떤 곳인가?

A. 희망법은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로 2012년 6명의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수임료를 받지 않고 오로지 개인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단체이며, 정부 및 대기업의 지원도 받지 않고 있다. 주로 법을 통해서 사회를 의미 있게 바뀌는 일을 하고 있다.

Q. 의미 있는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A. 법제도의 개선과 적극적인 의제 발굴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진행된 성기성형수술 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이 허가된 사건이라든지,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주기 발언



희망법 SOGI팀 2017 퀴어퍼레이드 부스에서



인권 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변 소수자위 위원으로 발언

용시협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등이 있다.

Q. 희망법 내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

A. 희망법에는 4개의 팀(‘기업과 인권’, ‘장애인 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집회의 자유’)이 있는데, 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SOGI)’팀에 소속되어 있다. SOGI팀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며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위해 일한다. 주로 소송을 통한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에 대응하고, 입법 및 정책 마련을 통해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한다. 이 외에도 단체들의 법적분쟁을 자문하거나, 연구활동 및 책자 발간, 관련 인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인권옹호활동도 하고 있다.

Q. 변호사로서 송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옹호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A. 희망법이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가 ‘희망법의 활동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넓은 운동의 일부’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 우리는 거대한 인권운동의 일부이고, 현장과 연계되어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희망법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고, 개인으로서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나는 스스로를 ‘변호사이자 시민사회 활동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캠페인이나 기자회견 등을 기획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퀴어여성 네트워크에서 여성 성소수자 켄기대회, 생활체육대회 등을 기획했다.

Q. 공익인권변호사로서의 삶이 갖는 일장일단은?

A. 공익인권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로펌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 할지라도 사건 자체가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침해’ 사건들과 공익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일을 하는 것이므로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일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또 일을 하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전보다 인권친화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성취감도 느낀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너무 바쁘다(웃음). 변호사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의 업무도 동시에 하고 있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각종 행사와 회의가 주말에도 잡혀있어서, 최근 한달간 제대로 쉬지 못했다.

Q.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면?

A. 변호사가 된 이후 종종 성소수자들에게 이베일이 온다. 정말 심각한 법률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지만 성소수자가 아니어도 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상태이다. 간단한 지식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 나 또한 절실했던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힘이 닿는데까지는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Q. 공익인권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 후배들이 많이 있다. 선배로서 그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 준다면?

A. 공익인권변호사의 스펙트럼은 정말 다양하다. 과거에는 공익인권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전업변호사’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회에 나와 보니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공익인권변호사가 있었다.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공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익인권 사건을 하는 변호사, 민변의 위원회 등에서 올라온 사건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등등. 반드시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비영리 전업일 경우 금전적인 문제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어 진입장벽이 다소 높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의 공익인권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진로가 고민된다면 희망법에서 매년 여름 개최하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 참여해 진로를 모색하는 방법도 있다.

Q. 지난 5월,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들이 조성한 공익기금 ‘공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3년 동안 함께 공부한 친구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 감회가 새롭겠다.

A. 서울대 공익기금¹⁾은 처음부터 공익기금의 형태는 아니었다. 서울대 로스쿨 1기 김재왕 변호사님이 희망법을 설립했을 때,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는 형태였다. 이후 조금 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익기금 형태로 자리 잡았고, 현재는 각 기수별로 ‘공들임’, ‘공명’, ‘레인보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는 지난 5월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정말 감사하다. 동기들의 기금이니까 허투루 쓸 수 없고, 그래서 책임감이 생긴다.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또 서울대를 시작으로 고대와 연대 로스쿨에도 공익기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뜻깊은 활동이니 25개 로스쿨에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A. 변호사가 된 후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일조할 수 있다. 지금으로선 성별변경 특별법,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쟁점에 많이 참여하고 싶고, 이런 의미 있는 소송들을 포함해서 교육이나 연구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다. 성소수자 인권운동 분야에서도 뜻을 이루고 싶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 변화를 일궈내고 싶다.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오래 살고 싶다.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는 사람이 드물다. 40세만 넘어가도 커뮤니티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진로 고민이 큰 10~20대 성소수자들에게는 선례가 없다. 노후에 어떻게 될지 그려볼 수 있는 롤모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 꿈은 오래 사는 것이다. 60~70대가 되어서 노년의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웃음). [창](#)

1) 공익기금은 졸업 후 공익인권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이 일정금액을 매달 약정하여 월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성명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건설적 개선은 합격을 정상화에서 시작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존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되었다. 풍부한 인문교양, 다양한 전공을 기반으로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법조인의 양성은 본 제도의 이상이자,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이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가졌던 한계, 즉,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에만 매몰되는 제도적 문제를 극복할 단초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다양한 전공과정을 수료한 인재들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과소한 합격률과 그에 수반되는 높은 경쟁률 탓에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어 장기간의 수험생활에만 빠져있는 폐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인재들이 기회를 상실했고,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문제를 겪어야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와 함께 새로운 법조인력 충원 수단으로서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도입 시부터 총 입학 정원 자체를 제한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인가주의 및 정원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는 분명 기존 법조인력 충원 방식에서 폐단으로 지적된 국가인력 낭비 및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및 변호사시험 실시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 87.15%였으나,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로 계속 감소하여 2017년 제6회 시험은 51.45%를 기록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감소하는 까닭은 합격기준 설정 시에 본 제도의 도입취지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추이를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기존 합격률 고려’라는 형식적 기준만을 앞세워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위 기준에 의하면 필연적으로 재응시자가 누적되어 최종적인 합격률은 약 42.86%로 수렴하게 된다.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우수한 인재들 중 절반 이상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 인력낭비를 막자는 제도적 취지와 정확히 상충된다.

지금과 같이 낮은 합격률이 지속되면 자연스레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는 고시 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 결과 제도 도입의 취지는 형해화 될 수밖에 없고,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의 폐단을 끊을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진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길은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행 합격률의 정상화만이 시험을 위한 법학교육에서 벗어나, 전문적·다원적 식견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백분 달성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한다면, ‘변시 낭인’이라는 또 하나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제도로 남게될 뿐이다.

최근 검찰 및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드높다. 사법부 개혁을 책임질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로스쿨 제도의 건설적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발전시키는데 법조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 시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로부터 출발되어야만 한다.

2017. 9. 28.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성명서

“법조윤리시험 운영 및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요구한다”

1. 제8회 법조윤리시험은 종전의 법조윤리시험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시험이었다.

2017.8.5.(토) 실시된 제8회 법조윤리시험은 2007명이 응시하여, 단 1192명만이 합격하였다(합격률 약 59.4%). 제1회 시험에서 기록한 합격률 99.4%를 시작으로 제6회 96.1%, 제7회 98.2%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인 법조윤리시험의 난이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제8회 법조윤리시험은 종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실시되어 응시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2. 이번 시험의 자의적 난이도 상승은 수험생들에게 형성된 기존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제8회 법조윤리시험 난이도가 현격히 상승했다는 점은 이미 법조계 전반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드러난 법조계의 비리, 변호사법 위반 사례 등이 법조윤리시험 난이도와 변별력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 역시 이를 방증한다.

사회적 공기로서 법조인이 건전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법조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때문에 향후 법조윤리시험의 엄정한 평가기준을 확립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환영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의 급격한 난이도 상승은 기존 시험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형성된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법조윤리시험의 난이도 상승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교육과 발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는 대상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다. 시험을 주관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은 하나이나,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강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응시자격 부여학년과 법조윤리 수업의 평가방식이 다르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그 내용만큼은 현재까지 집적되어 온 출제 유형 및 의도, 법령의 제정 목적 등에 기반하여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기출문제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여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는 일각의 주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나치게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는 단견일 수밖에 없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예년과 다르지 않은 법조윤리 교육을 받았고, 작년의 높은 합격률에 비추어 일정 정도 난이도가 상승되리라는 예측 하에 시험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비법조인들의 윤리의식 강화라는 선한 취지가 무색할 만큼의 예측불가능한 난이도 상승으로 학업 현장에 당혹감을 안겨 주었다. 법무부는 전년도인 제7회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지난 6년간 법조윤리시험의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제공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교육이 내실화 되었다”고 한 자평을 스스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법조윤리 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가 그 원인이다. 난이도의 향상은 우선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교육방식의 전반적인 개선과 동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4. 차후 법조윤리 시험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관부처인 법무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법조윤리 시험은 법조인을 선발하는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한 첫 관문이다. 그리고 예비 법조인들이 평생을 종사할 직역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험이 주관부처의 자의적인 변별력 조정에 의해 학생들이 불측의 피해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면, 이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향후 예비 법조인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법무부는 합격률 발표 이후 “시험의 안정성,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해 법학전문대학원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지지를 표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번 제8회 법조윤리시험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주관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 역시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이에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법조윤리시험 운영 및 관리의 일관성 확보, 법학전문대학원 정규 교육과정과의 충실한 연계, 법조윤리시험 연간 응시기회 확대를 요구한다.

2017. 9. 29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언론 속 로스쿨

이형규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로스쿨, 사시보다 비용 줄인 좋은 제도” 입학과정 투명화 …‘금수저’논란 없앨 듯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약력

- 1955년생. 1979년 한양대 법학과 졸업.
- 한양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 독일 Goettingen 대학교 법학 박사.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현).

법률가 양성 체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사실상 일원화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마냥 곱지만은 않다. ‘비싼 등록금’, ‘특혜 입학’ 등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논란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률가 양성 제도가 일원화된 만큼 로스쿨로서는 반드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사법시험(사시) 2차 합격자가 발표된 10월 1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의 이형규 이사장을 만나 로스쿨에 대한 논란의 진실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의 발전 및 상호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소속돼 있다.

Q. 사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간 사법시험 제도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양합니다. 이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이지요. 사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시 낭인의 양산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법시험 응시자 3만 명 중 합격자는 3%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 10년 이상 사시 통과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지요.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능한 인재들이 사시 준비에 매진해 장기간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인 일에 쓰지 못한 셈입니다.

시험만 붙으면 된다는 생각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무시하고 사시에만 골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교 학부 교육의 파행을 야기하기도 했어요. 법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보게 하는 로스쿨은 고시 낭인 방지는 물론 대학교 교육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Q. 소위 ‘금수저’들만 로스쿨 입학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최근 모 국회의원실에서 많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학업 등을 위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많아 통계가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 또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받는 요인인데 이 부분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액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사립대는 등록금을 15% 인하했고 국·공립대는 앞으로 5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공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평균 550만원 정도이며 사립대는 800만원 선이 됐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나 경영전문대학원보다 등록금이 오히려 싼 편입니다.

장학금까지 고려하면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더욱 낮아 집니다. 2016년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은 등록금 총액의

30%를 장학금으로 돌려줍니다. 전체 장학금의 70% 이상은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지급하고 있고요. 로스쿨 기숙사 비용도 월 2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시를 준비하는 이들은 월세부터 시작해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로스쿨이 사시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로스쿨 부정입학에 대한 의혹도 해결 과제입니다.

“교육부, 각 대학 로스쿨 원장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지난해부터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정량평가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학 적성 시험(LEET), 학부 성적, 공인 영어 성적을 입학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얼마나 반영하는지 산정 방법도 공개하고 있어요. 면접이나 서류 등 정성 평가에서도 완전한 블라인드 면접과 외부 심사위원 참석으로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서류나 면접에서 자신의 출신 대학이나 부모의 성명과 직업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했지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교 성적이나 영어 성적 등을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Q. 현행 로스쿨 제도의 개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법률 전문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동떨어진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아쉽습니

다. 특정 과목의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컨대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험 과목은 민사법·형사법·공법 그리고 7개 선택 과목 중 하나를 골라 시험을 치르는 선택법으로 분류됩니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와 출제 범위, 학습 분량이 크게 차이나는데, 학생들은 시험 준비가 쉬운 과목에만 몰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응시생의 40%가 상대적으로 학습 분량이 적은 국제거래법을 선택하고 있고 학습 분량이 많은 조세법을 선택하는 응시생은 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입니다. 1회 합격률은 87.5%에 달했지만 가장 최근인 6회 합격률은 51.45%로 떨어졌어요. 자연히 학생들의 목표는 변호사 시험 합격이 됐고 전문성보다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죠. 실무 능력 향상도 과제입니다. 로스쿨생들은 3년의 교육과정 중 단기간의 실습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을 봅니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실무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Q.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변호사 시험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과목 중 선택과목을 시험 대신 이수제로 전환하고 합격률도 높일 필요가 있어요. 합격률을 높이려면 현행 정원제가 아니라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하는 방식으로 시험 운영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로스쿨 출신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변호사 시험 합격생들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50년 가까이 된 사법연수원은 체계적인 법 전문 교육기관으로 교수진도 훌륭해요. 현재는 기능이 축소됐는데 이를 다시 확대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6개월 정도 연수를 받도록 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실무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국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창**

출처: 한경 비즈니스 제 1142호 (2017년 10월 18일)

로스쿨 단상(斷想)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 김영철 교수



올해에 로스쿨 9기생이 입학했고 6번째 변호사시험이 치러졌으므로, 내년이면 로스쿨 출범 10년째이다. 도입초기부터 지금까지 갖가지 이슈로 로스쿨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6년을 전후하여 전국법과대학장 협의회장으로서 로스쿨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다음해 7.3. 로스쿨 근거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일조한 한 사람으로서 소회가 없을 수 없다. 이 기회에 로스쿨을 둘러싼 몇 가지 논란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웃 일본의 로스쿨 실패사례에 비추어 우리 로스쿨도 곧 소멸될 운명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다. 일본은 로스쿨 출범 시에 이른바 ‘준칙주의’라 하여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어 신청하면 모두 인가해 주되, 향후경쟁을 통하여 도태되다가 최종적으로는 합계정원 4,000명 정도규모의 로스쿨만 살아남을 것을 예정하여 설계하였다.

결국 합격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로스쿨이 생겨나고, 정원미달 학교가 늘어나 자진 폐쇄하는 로스쿨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처음부터 예상한 것이고, 선불리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금은 단지 불량 로스쿨이 도태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인가주의’를 채택하여 엄격한 심사 끝에 25개 학교에만 로스쿨 인가를 내주

었고, 각 로스쿨이 경쟁하며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로스쿨의 정원미달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법학적성시험 응시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로스쿨 조기소멸론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시장의 신뢰를 얻은 결과라 볼 수 있다.

둘째,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이른바 ‘흙수저’가 법조인이 되는 구조, 즉 ‘개천에 용나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다. 과거에는 우수한 인재가 집안형편 때문에 고등교육을 못하였으나 독학으로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개천용’이 간헐적으로 생겨났다. 오늘날은 극빈자 자녀에게도 전액 장학제도 혜택이 주어지므로 의지가 있는데도 대학을 못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흙수저’ 대졸자가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형제도 외에도 정원 5%의 특별전형제도가 열려있으며, 각 로스쿨이 학생 납부금의 40%가량을 장학금으로 배정하여 이들에게 우선 지급함으로써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경로가 달라진 해도 ‘개천용’이 날아오를 길은 아직도 열려있다.

셋째, 로스쿨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수요에 맞는 법률가를 배출하여 사회구성원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각에는 동의한다. 그리고 개업변호사 시장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주의 사회로 변신하려면 판사, 검사, 변호사, 정치인, 공무원 등 정부나 공적영역, 전통적 직업군의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일반회사 사원, 공공서비스 분야 법률전문가 등 민간영역에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변호사 수가 어느 정도라야 적정한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주의 사회로 변신하려면 판사, 검사, 변호사, 정치인, 공무원 등 정부나 공적영역, 전통적 직업군의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일반회사 사원, 공공서비스 분야 법률전문가 등 민간영역에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아직도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어떠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는지를 보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의 경우에 변호사 자격취득 후 활동을 시작하여 10년 정도를 지켜보아야 그 공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합격자 수 조정문제는 그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넷째, 로스쿨 교육이 부실하여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에 너무 쉽게 통과한다는 시각에 관해서다.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치러봤고, 로스쿨 출범 시부터 지금까지 법학교육을 시켜 온 법조인 겸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 로스쿨과 정 3년은 법학부 4년보다는 짧지만 미국의 로스쿨 2년보다

는 길다. 사법시험과 비교할 때 사시 1차에 해당하는 선택형 과목 수는 훨씬 늘어났고, 사시 2차에 해당하는 사례형 과목도 만만치 않는데다, 사시에 없는 기록형 시험도 전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수들은 이 엄청난 분량의 과목을 기초, 심화, 실습의 단계로 나누어 심도 있게 교육하느라 피나는 노력을 하고, 학생들도 이에 상응하여 춘음을 아껴 공부한다. 최근의 합격률이 50%에 머무는 현상도 ‘열공’을 자극한다. 수년간 축적된 통계에 의하면, 어느 로스쿨을 가리지 않고 학교성적이 우수한 자가 로스쿨 시험에도 쉽게 통과함은 공통현상이다. 종래 대학 재학생이 학교수업을 등한시하고 산사 등에서 혼자 시험을 준비하던 풍조가 로스쿨 하에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국민 서비스를 잘 하는 법률전문가가 되려면 풍부한 법률지식 외에도 상대방과의 소통 및 설득능력, 법문서 작성능력, 법정 활동능력 등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로스쿨의 사명은 학생들이 로스쿨 수료 후 이러한 종합능력을 갖추 수 있는 기초적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러한 능력의 완성에는 사회에 나가 일하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창](#)

출처: 법률저널 2017-09-29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원서접수기간 : 2017. 10. 10.(화) 09:00 ~ 13.(금) 18:00까지

대학명	모 집 정 원							지 원 현 황							경 쟁 룰						
	가군			나군			합 계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38	2	40	40			—	194	10	204	204				5.11	5.00	5.10	5.10
건국대	38	2	40			—	40	131	6	137			—	137	3.45	3.00	3.43				3.43
경북대	57	3	60	56	4	60	120	259	17	276	275	16	291	567	4.54	5.67	4.60	4.91	4.00	4.85	4.73
경희대	57	3	60			—	60	385	22	407			—	407	6.75	7.33	6.78				6.78
고려대				114	6	120	120				334	32	366	366				2.93	5.33	3.05	3.05
동아대	38	2	40	38	2	40	80	330	18	348	350	14	364	712	8.68	9.00	8.70	9.21	7.00	9.10	8.90
부산대	66	4	70	46	4	50	120	232	19	251	170	20	190	441	3.52	4.75	3.59	3.70	5.00	3.80	3.68
서강대	19	2	21	18	1	19	40	133	8	141	148	5	153	294	7.00	4.00	6.71	8.22	5.00	8.05	7.35
서울대	141	9	150			—	150	386	43	429			—	429	2.74	4.78	2.86				2.86
서울시립대	25	5	30	20		20	50	184	33	217	152		152	369	7.36	6.60	7.23	7.60		7.60	7.38
성균관대				114	6	120	120				443	24	467	467				3.89	4.00	3.89	3.89
아주대	24	2	26	23	1	24	50	161	12	173	171	7	178	351	6.71	6.00	6.65	7.43	7.00	7.42	7.02
연세대				114	6	120	120				413	20	433	433				3.62	3.33	3.61	3.61
영남대	33	2	35	33	2	35	70	278	15	293	310	15	325	618	8.42	7.50	8.37	9.39	7.50	9.29	8.83
원광대	30		30	25	5	30	60	316		316	264	28	292	608	10.53		10.53	10.56	5.60	9.73	10.13
이화여대				94	6	100	100				382	33	415	415				4.06	5.50	4.15	4.15
인하대	22	3	25	25		25	50	159	18	177	209		209	386	7.23	6.00	7.08	8.36		8.36	7.72
전남대	51	9	60	60		60	120	210	31	241	271		271	512	4.12	3.44	4.02	4.52		4.52	4.27
전북대	37		37	37	6	43	80	221		221	240	19	259	480	5.97		5.97	6.49	3.17	6.02	6.00
제주대	19	1	20	19	1	20	40	107	5	112	97	6	103	215	5.63	5.00	5.60	5.11	6.00	5.15	5.38
중앙대	46	4	50			—	50	288	19	307			—	307	6.26	4.75	6.14				6.14
충남대	50		50	45	5	50	100	202		202	193	21	214	416	4.04		4.04	4.29	4.20	4.28	4.16
충북대	40		40	26	4	30	70	214		214	129	15	144	358	5.35		5.35	4.96	3.75	4.80	5.11
한국외대	17	3	20	30		30	50	86	18	104	183		183	287	5.06	6.00	5.20	6.10		6.10	5.74
한양대	95	5	100			—	100	574	25	599				599	6.04	5.00	5.99				5.99
합 계	905	59	964	975	61	1,036	2,000	4,856	309	5,165	4,928	285	5,213	10,378	5.37	5.24	5.36	5.05	4.67	5.03	5.19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BOOK



**재판을 통한 개혁에 도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저 자 : 권석천
가 격 : 18,000원
판매처 : 온·오프라인 서점

2017년도 제2차(8월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제3차(10월말 시행)
해설집 11월말 발간 예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과 정답률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법전원생들의 변호사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는 해설집이다.

가 격 : 10,000원 / 택배비 4,000원 부과 (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신 청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

- 연락처 : 02-888-2031
- 이메일 : lawschool@leet.or.kr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3-018484 (예금주 : 삼영문화사 이준규)

신청방법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교재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송부
2. 입금계좌로 입금 (단, 입금자명은 주문자명과 동일해야함)



2017 / 11 + 12 21

타인의 유서를 품고 사는 사람들¹⁾

남형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정확히 30년 전 일이다.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300명의 전체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있었다. 강사는 후에 대법관을 지낸 실력이 쟁쟁한 고등법원 판사였다. 수업 중 열 명의 연수생에게 질문을 했는데 연수생들 간에는 그 열 명이 1등부터 10등까지라는 말이 돌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사법시험 수석, 차석이 그 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소문의 진위야 확인된 바 없지만, 그 날 이후 나머지 8명 이마에는 10등 이내라는 등수가 계급장처럼 붙여졌다.

당시 사법연수원은 성적 또는 서열이 전부처럼 여겨지는 사회였다.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1대 1로 합산해 서열을 매기는데, 향후 법관·검찰 임관 시 결정적 자료가 되었다. 지금은 많이 희석됐지만 얼마 전까지도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초임지를 정할 때 연수원 수료 성적이 최우선 고려대상이었고, 이후 인사이동, 특히 승진 인사 때 이 서열이 뒤바뀌는 예는 별로 없었다. 입소 때부터 이런 사실을 주위들은 연수생들은 사법시험이란 관문을 통과했지만, 합격 등수로 인생 향방의 절반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상당수는 처음부터 좌절을 맞보는 반면 소수는 크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서로 다른 계급이 동서(同棲)하게 되었던 것이다. 합격 등수를 확인한 후 그 어려운 사법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도 더러 있었으니 필자의 이 말이 근거 없는 허황된 과장은 아닐 것이다.

#2 변호사는 고사하고 노동법을 설명해줄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던 전태일. 그의 바람대로 친구가 되어 준 사람이 바로 고 조영래 변호사다. 훗날 『전태일 평전』의 작가로도 드러난 조 변호사님은 이른바 서울대 수석 합

격자 출신이다. 예의 보장된 길을 마다하고 그가 찾은 곳은 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이었다.

조 변호사님 생전에 의뢰인으로 그를 만난 적이 있다. 망원동에 살 때 1984년과 1986년 두 번에 걸쳐 큰 수해를 입었는데, 모두가 천재지변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유수지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와 관리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생각을 하였다. 당시 이불까지 젖는 피해를 입었던 필자의 가족 등 수많은 주민들이 배상을 받았다. 필자의 직접 경험이 이것일 뿐 조 변호사님은 짧은 생애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 약자들의 숨통을 터준 의미 있는 판례를 여럿 남기셨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판결이 전부가 아니었다.

신약성서에 예수가 든 비유 중 이런 것이 있다. 어떤 부자가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두고 그저 지나갔던 당대 지도자 계층의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들과 달리 정성스레 간호하고 병원으로 옮겨주며 추가 비용까지 부담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 등, 세 사람을 두고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되물었다.

종교를 떠나 조 변호사님의 삶이 이리했다.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짧은 생을 바쳤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가치는 지금도 살아 있다.

#3 지금 로스쿨 분위기도 그 옛날 사법연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들 사이에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가르고 일찍이 채용확정(컨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아가 유급자와 변호사시험 재응시자 등을 나누어 색안경 쓰고 볼

누구나 “한 때”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을 공부하여 법률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의 생각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대부분 틀에 박힌 삶을 택한다 해도 그런 삶을 거부한 조영래 변호사님과 같은 사람이 로스쿨마다 10%씩만 나와도 우리 사회는 살만 한 세상이 될 것이다.

지도 모른다. 로스쿨 학생들 간의 치열한 경쟁의식과 비정상적인 인간관계는 사법연수원 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다. 문제는 로스쿨 초기보다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여름 방학 때 일이다. 필자가 재직 중인 로스쿨의 공익인권법학회 장애인권 소모임에서 서울대 로스쿨 장애인권법 소모임과 함께 제1회 로스쿨 장애인권법학회(소모임)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다.²⁾ 대부분 학생들이 학기 중과 다름없이 도서관을 메우고 있는 이때, 양교 로스쿨 학생들뿐만 아니라 몇몇 로스쿨 학생들이 모여 3시간 이상 진지하게 장애인권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멀리 희망이 보였다.

#4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륙 전 화장실에 다녀온 흑인 남성이 기내에서 부당하게 쫓겨나 체포됐다. 억울한 일을 당한 흑인이 한둘이겠는가고 눈 감을 수도 있었겠지만, 복도 건너편 좌석에 있던 변호사 부부가 변호해주어 흑인 남성은 풀려났다. 이 일은 같은 기내에서 이를 목격한 크리스타 로솔리노라는 변호사가 델타항공에 항의서한을 보낸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법정이 아닌 항공기와 공항에서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부당한 일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³⁾

2년 전 사법시험 존치 논의로 홍역을 치를 때 로스쿨 학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심지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때 참여했던 한 학생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자신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알기에 그나마 경찰의 부당한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간 생존의 낭떠러지에 내몰려 적법한 주장을 해도 법 지식 부족으로 끌려가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 시기에 로스쿨에 다녔던 학생들은 비록 자신들의 문제로 약자의 지위에서 서 본 것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강도 만난 이웃”을 보았으니 두고두고 귀한 경험이 될 것이다.

#5 누구나 “한 때”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을 공부하여 법률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의 생각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대부분 틀에 박힌 삶을 택한다 해도 그런 삶을 거부한 조영래 변호사님과 같은 사람이 로스쿨마다 10%씩만 나와도 우리 사회는 살만 한 세상이 될 것이다. 생각을 달리하면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을 겪는 곳이 보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 법률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곳이 어디 한두 곳이었는가. 좀 더 창의적이고 열정을 갖고 보면 젊은 법률가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은 적잖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곳은 들어가는 데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다. 그 마음으로 보면 지금 옆자리에서 즐고 있는 친구들도 정겨워 보이지 않을까. 좋은 법률가는 반드시 성적순은 아니다. **창**

1) 이 표현은 홍은전, “그 사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겨레 2017. 7. 17.자 칼럼 중에서 따왔다. 일독을 권하고 싶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3166.html> 유서까지는 아닐지라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의 전문지식을 그들을 위해 쓰는 것은 고귀한 일이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2) 박은하, “제1회 로스쿨 장애인권법학회 연합 세미나 개최”, 법률신문 2017. 8. 21.자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399&kind=AM&key=>
3) “美 항공사들 왜 이러나?...이번엔 화장실 간 승객 내쫓아”, 연합뉴스 2017. 4. 27.자 기사, <http://v.media.daum.net/v/20170427120646789?from>

좌우명이 무엇인지 묻자 ‘나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타인의 삶 또한 긍정하겠다는 뜻이다. 또렷하고 시원한 이목구비만큼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원 학생을 만나봤다. editor. 박소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한상원 학생

“소수자의 인권 옹호와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Q 학부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A 학부에서는 신학과 문화인류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학부 시절 신학실천 수업을 통해 접한 이주민센터에서 한국어교실 보조교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문화인류학 수업을 통해 알게 된 목공방에서 인턴을 해보기도 하는 등 다소 별난 학부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어디에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주민센터에서 만났던 선생님이 “너는 아무리 봐도 활동가 체질”이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나네요(웃음).

Q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학부 시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활동가 선생님들을 보며 저도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진로를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주민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다보니 이주민과 장애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는데, 변호사가 된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는 와중에 특별히 더 애착을 갖고 공부하는 과목이 있나요?

A 변호사시험 준비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애착을 가지고 공부하는 과목은 ‘국제인권법’입니다. 이주민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활동하며 국내법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인류가 경험한 다양한 인권침해의 역사를 반성하며 형성된 집단지성의 산물인 만큼, 국제인권법을 공부한다면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Q 활동하고 있는 학회나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A 현재 교내 공익인권법학회에서 장애인권소모임 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모임에서는 32명의 소모임원이 점심모임 및 세미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방학에는 서울대 로스쿨 장애인권소모임과 함께 장애인권법학회(소모임) 연합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하였습니다¹⁾. 당시 성균관대, 한국외대 로스쿨 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셨는데, 추후 타 로스쿨에서도 장애인권소모임이나 학회가 만들어져서 로스쿨 장애인권법학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연합세미나 주제를 발전시켜 재단법인 동천의 후원²⁾을 받아 “장애대학 나래”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고등교육권 보장과 자기옹호를 위한 법률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 시절 활동과 앞으로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과 같은 활동이라 생각하며 로3이 되기 전까지 열심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Q 로스쿨에서 보낸 지난 2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지난 여름방학에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교에서 온 실무수습생 동기들과 함께 치열한 한 달을 보내며 로스쿨 지원 당시의 마음과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수습 중 희망법 변호사님들을 통하여 공익기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익기금은 공익전담변호사의 길을 선택하는 동료를 지지하고 후원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에서 처음 시작된 후원회 성격의 기금을 의미하고, 현재에는 서울대, 고려대 로스쿨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익변호사 진로를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도 공익기금이 생긴다면 저를 포함하여 공익전담변호사를 고민하는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본교 공익인권법학회 여름 MT에서 저 말고도 이러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학교에서도 공익인권기금을 만들기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결실을 보기는 어려운 사업이지만, 앞서 시작한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 분들의 조언을 받으며 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9기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Q 졸업 후 어떤 분야의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요?

A 처음 법조인이 되겠다고 다짐한 이유인 소수자 인권 옹호와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익 법률지원단체나 재단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단체를 직접 결성하고 활동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

한상원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노하우!

▲ 언어이해 : 본인이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서 체계적인 독파가 필요함. 소재가 무한하기에 배경지식을 쌓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지만, 큰 틀에서의 경향성은 존재함. 독서로 커버하기 어려우면, 인터넷 강의와 모의시험을 통하여 배경지식을 확보해도 무관함.

▲ 추리논증 : 기출문제를 아끼지 말고, 가능한 많이 풀어보고 스터디를 통해 풀이 방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함. 매년 새로운 유형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기출문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확실히 풀 수 있다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틀리더라도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자기소개서와 면접 :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객관화된 주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함. 자기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소개하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가급적 리트 이후에 준비하지 말고 로스쿨 지원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기 바람. 면접의 경우 녹음과 녹취를 통해서 자신의 태도와 자세, 어투와 어조를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함. 자신도 모르던 습관을 발견할 수 있음. 스터디원의 도움을 받는 것만큼이나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것만은 기억해요! : 자신에 대한 긍정이 필요하다.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스펙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매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게 되기 쉽다. 입시에서 스펙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 이미 주어진 것일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만큼은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입학을 위해 준비하는 한 순간 한 순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비전과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하던 로스쿨에 입학하더라도, 막대한 학업 압박에 치이다 보면 다시금 자신감을 잃고 좌절할 수도 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입학하고서도 기약 없는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등 입시과정에서 성적과 스펙으로 환원할 수 없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긍정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단기적 입시에서뿐만 아니라 이후 로스쿨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1) 법률신문, “제1회 로스쿨 장애인권법학회 연합 세미나 개최”, 2017. 8. 1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399&kind=AM&key=>
2) 법률저널, “동천, 올해도 공익·인권활동 예비법조인 활동팀 선발”, 2017. 9. 26.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90>



보좌진으로서의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20대 국회 김성수의원실 비서관 / 보좌관

－ 변호사시험 1회 － 19대 국회 최원식의원실 비서관 / 보좌관 － 20대 국회 김성수의원실 비서관 / 보좌관

이아영 변호사

2012년 6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다수 변호사들이 여의도동 1번지를 직장으로 삼았다. 그해 4월 첫 배출된 로스쿨 변호사들이 국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다. 물론 그 전에도 극소수 변호사가 일하고 있었지만 수천 명에 달하는 입법부 구성원을 감안하면 손에 꼽을 정도였다. 변호사인 내가 국회, 그것도 국회의원실에서 일한다고 밝히면, 대부분의 반응이 “왜?” 아니면 “원래 정치에 뜻이 있었냐?”는 질문이 주를 이루곤 했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국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다. 만난 적 없는 후배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받기도 하고, 지인 소개로 전화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질문과 관심을 받을 때면 국회가 예전에 비해 많은 변호사들이 관심 갖는 직장이 되었구나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국회의원 보좌진 업무가 변호사들에게는 생소한 영역이고 설불리 도전하기에는 주저하게 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이 글 하나로는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국회 보좌진은 어떻게 되는지, 주된 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로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한 답을 드리고자 한다.

국회는 크게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그리고 국회의원실로 나뉘 볼 수 있다. 법제실, 상임위원회 등 사무처, 입조처, 예정처는 국회 입법지원조직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점점 늘고 있다. 어쩌면 의원실보

다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회는 300명의 의원, 그리고 의원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런 이유로 ‘보좌진으로서의 변호사’에 대해서만 한정해 말씀드리겠다.

보좌진은 소위 큰 ‘뺨’이 있어야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나부터도 일면식도 없는 국회의원과 인연을 맺고 일을 하고 있다. 물론 법조계와 마찬가지로 좁은 곳이라 평판이나 추천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회 홈페이지의 ‘의원활동－의원실 채용’ 코너에서 보좌진 채용 공고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대부분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심사와 보좌관 또는 국회의원의 면접을 거쳐 채용된다. 물론 경쟁이 점점 치열해 의원실에 따라서는 필기시험을 보거나 문서 작성 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보좌진의 업무는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적극적인 멀티플레이어’형이 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법’만 잘 알면 되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국회 보좌진은 로펌과도 다르고 사내 변호사와도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나에게 주어진 사건을 잘 다루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분야 중 가장 역동적이고 순발력이 필요하다.

보좌진은 입법에 이르는 복잡한 정치과정을 온 몸으로 부대껴 가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보좌진 업무는 각 의원의 의정활동 기초, 처해있는 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여당인지 야당인지,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상임위는 어디이며 직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의 모든 의정활동은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가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고, 국회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고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법, 정책, 예산, 지역주민들의 민원, 상임위 현안 등 보좌진이 대면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법’을 잘 안다는 것은 능력 있는 보좌진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이미 갖고 있는 셈이다.

업적 출신 배경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도, 그를 돕는 보좌진의 업무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국회라고 하면 한 덩어리로 생각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300개의 의원실은 300개의 서로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국회의원은 최대 9명의 보좌진과 일할 수 있다. 보좌관(4급 상당) 2명, 비서관(5급 상당) 2명, 비서(6급, 7급, 9급) 3명, 그리고 인턴 2명까지 총 9명의 보좌진이 의원 한명을 보좌해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략기획, 회계, 홍보, 수행, 영업팀이 각기 다 필요하지 않겠나. 의원실도 마찬가지로 9명이 이 모든 일을 각각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가 1인 뭇만 해선 부족하다. 변호사 역시 법안 입안이나 심사 등 입법 관련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홍보, 상임위 활동이나 말씀자료(연설문 등) 작성은 기본이고, 어려운 지역구 민원해결, 때론 의원을 따라다니는 수행도 중요한 업무다.

이러한 역동적인 업무환경, 국회의 특수성 때문에 ‘적극적인 멀티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소극적인 변호사는 살아남기 어렵다. 소극적인 변호사는 선거기간이 돌아오면 거취 결정의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의원의 제1관심사인 ‘재선’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모두 잘 할 순 없지만 최소 여러 개를 할 줄 알고 잘 해야 하는 것이다. 주어진 업무도 있지만 스스로 일을 만들고 역할을 챙겨야 할 때가 더 많다. 그런 점에서 순발력 있고 창의적 발상이 가능한 변호사가 쓰임새가 돋보여 유리하

다. ‘국회에서 일하는 변호사’라는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법’ 외에도 익혀야 할 기술이 많은 법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의 모든 의정활동은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가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고, 국회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고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법, 정책, 예산, 지역주민들의 민원, 상임위 현안 등 보좌진이 대면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법’을 잘 안다는 것은 능력 있는 보좌진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이미 갖고 있는 셈이다. 물론 법만 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잘 안다면 모든 업무를 더 쉽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복잡한 절차나 사례에 대한 빠른 판단, 적용, 확장은 변호사 보좌진들의 강점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송무 변호사의 업무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국회 보좌진 변호사는 여전히 낮은 영역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업무는 그동안 공부해 온 것과 사고(思考)하는 것, 주어진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그에 관련된 법적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변호사 업무의 핵심역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쉽게 한마디로 국회의원과 국민은 보좌진 변호사의 ‘클라이언트’다. 그리고 보좌진 변호사는 공익적 관점을 견지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선택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한다는 것. 국회 보좌진 변호사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창](#)

2018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의 개막을 알리기 위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서울시 성동구 소재)에서는 9월 22일(금)~23일(토) 양일간 「2018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가 개최됐다. 지난 8월에 치러진 법학적성시험(LEET)에 사상 2번째로 많은 지원자(10,206명)가 몰려, 공동입학설명회의 문전성시가 예고된 바 있었다. 실제로 이틀간 약 5,000명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공동입학설명회 첫째 날 오전에 진행된 개막식에는 25개 법전원 원장들이 참석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의 개막인사를 비롯해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5개 법전원의 개별 상담 부스가 마련됐으며, 상담 부스마다 1:1 상담을 받으려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학생들은 주로 자신의 점수(법학적성시험, 어학성적 등)가 합격권인지, 부족하다면 어떤 점을 더 보강해야 하는지, 장학금 혜택은 어떤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25개 법전원 부스에서는 25개교 원장을 비롯해 교수, 입학 담당자와 행정실 선생님들이 총 동원되어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 대기줄이 길어 아예 대기표를 나눠주는 학교도 등장했다



2018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에 참가한 수험생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상담이 시작되는 오전 11시 전부터 학생들이 개별 부스 앞에 줄을 서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개막인사 중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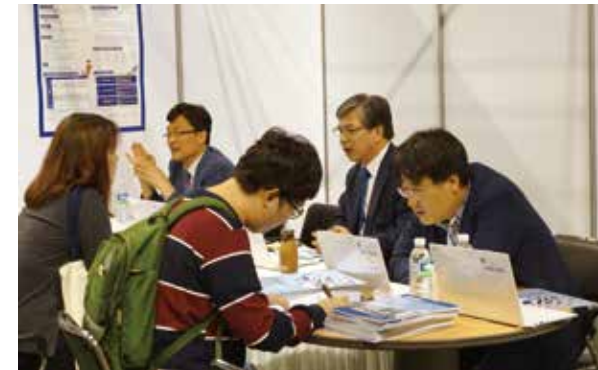
○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지금까지 9,285명의 변호사를 배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들은 현재 법원, 검찰, 법무법인, 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익 단체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출범 이후 탁월한 연구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최첨단의 강의실과 도서관 등 최상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재학생들이 우수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16학년도부터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15% 인하하였고, 국공립대학의 경우 앞으로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생 등록금 수입총액의 약 30% 이상을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6,000명의 재학생 중 무려 953명(15.8%)이 돈 한 톨 내지 않고 법전원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를 통해 지방소재 로스쿨에서는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10~20% 이상 선발하고 있다.

학교별 상담부스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와 법률플랫폼 '네이버 법률'의 상담 부스도 마련됐다. 한국법조인협회와 네이버법률 상담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입학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참가한 수험생 김모(26)씨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정보를 얻을 길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25개 로스쿨이 한 군데 모여서 입시 상담을 진행해 큰 도움이 됐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25개 법전원은 10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는 면접 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며,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된 이들은 2018학년도 법전원 신입생으로 내년 3월부터 법학도의 길을 걷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포함해 교수, 입시 담당자들이 학생과 1:1 상담을 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와 네이버 법률의 변호사들이 후배들을 위해 상담을 하고 있다.



제2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성균관대 법전원 '시나브law'팀 우승

지난 7월 20일(목) 개최된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시나브law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우리 국민들도 행정심판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날 대상은 성균관대 법전원 '시나브law', 최우수상은 영남대 법전원 '원용무애', 한국외대 법전원 '행심구명', 한국외대 법전원 '프Law포즈', 서울대 법전원 '幸審(행심)' 팀이 각각 수상했다.

제16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중앙대학교 법전원팀 대상 수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주최한 '제16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지난 8월 18일(금), 서울여성 아트홀 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8개 팀(6개 대학, 2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연 결과 '(주)두들의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및 미래자동차의 미래오토리페어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건'을 경연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충남대 법전원,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2관왕 차지

지난 8월 16일(수) 특허법원에서는 제4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진행됐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38개팀 중에서 본선에 진출한 24개팀이 본선을 거쳤고, 특허부문에서 8개팀, 상표부문에서 4개팀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특허부문과 상표부문의 1등상인 '특허법원장상'을 모두 충남대 법전원에서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다. 특허부문 1등상은 이경욱, 유민경, 강송훈 학생이, 상표부문 1등상은 오경아, 임정원, 홍용석 학생이 받았다. 이 외에도 성균관대 법전원팀(특허부문 2위), 서울대 법전원팀(상표부문 2위) 등이 수상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지난 8월 19일(토)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는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렸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올해로 3회를 맞았으며, 시민모임 '손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주최로 진행됐다.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다룬 이번 대회에서는 충남대학교 법전원 서범진, 이수열, 고혁준 학생이 최우수상(국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제7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성황리에 개최

지난 8월 26일(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가 개최됐다. 올해로 7회를 맞는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는 국제인권법 쟁점과 관련된 이슈를 변론을 통해 배움으로써 국제인권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높여 보다 깊이 공부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여성혐오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1위팀에게 부여되는 법무부 장관상(존엄상)은 Right-Now팀(박아름, 범유경, 신주영)이 수상했다. 2위팀에게 주어지는 자유상은 인권감수성팀(박지훈, 오정필, 정진우)에게 돌아갔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건설적 개선은 합격률 정상화에서 시작된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최창훈



지금과 같이 낮은 합격률이 지속되면
자연스레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중국적인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 충북대 8기 최창훈이라고 합니다.

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이후 원우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전국의 원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존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풍부한 인문교양, 다양한 전공을 기반으로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법조인의 양성은 본 제도의 이상이자,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가졌던 한계, 즉,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에만 매몰되는 제도적 문제를 극복할 단초를 마련한 것 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과정을 수료한 인재들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추구

하는 목표입니다.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과소한 합격률과 그에 수반되는 높은 경쟁률 탓에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어 장기간의 수험생활에만 빠져있는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인재들이 기회를 상실했고,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문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와 함께 새로운 법조인력 충원 수단으로서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도입 시부터 총 입학 정원 자체를 제한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인가주의 및 정원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기존 법조인력 충원 방식에서 폐단으로 지적된 국가인력 낭비 및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및 변호사시험 실시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 87.15%였으나,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로 계속 감소하여 2017년 제6회 시험은 51.45%를 기록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감소하는 까닭은 합격기준 설정 시에 본 제도의 도입취지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추이를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기존 합격률 고려’라는 형식적 기준만을 앞세워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 기준에 의하면 필연적으로 재응시자가 누적되어 최종적인 합격률은 약 42.86%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우수한 인재들 중 절반 이상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인력낭비를 막자는 제도적 취지와 정확히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낮은 합격률이 지속되면 자연스레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중국적인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제도 도입의 취지는 형해화 될 수밖에 없고,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의 폐단을 끊을 수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진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길은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행 합격률의 정상화만이 시험을 위한 법학교육에서 벗어나, 전문적·다원적 식견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백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변시 낭인’이라는 또 하나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제도로 남게될 뿐일 것입니다.

최근 검찰 및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책임질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로스쿨 제도의 건설적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발전시키는데 법조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로부터 출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정상화를 실현하여 전국의 법전원 원우여러분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수습 후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변우석



졸업 후 건보공단에서
사회보험 및 보건의료관련
법률자문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건보공단에서
실무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변우석 이라고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법원, 경찰청, 국세청, 법제처 등의 공직과 법률구조공단, 언론중재위원회등의 공공기관 그리고 각종 로펌등 다양한 곳에서 실무실습을 하게 되고 많은 학우들이 어디서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무실습을 통해 앞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실무실습은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무실습기관 중에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무수습을 하였고 실습을 앞두고 계신 재학생분들께 건보공단의 실무수습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왜 건보공단인가?

저는 본교 약대를 졸업한 약사입니다. 약대 재학 중 사회약학에서 배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었고, 저의 직업과 제일 많이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실무수습기관들보다 친숙한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하에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금연사업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사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의료사고와 약화사고에서 구제받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보고 도움이 되고 싶어 법전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이 분들이 좀 더 보호받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건보공단에서 사회보험 및 보건의료관련 법률자문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건보공단에서 실무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설레는 첫 출근길

실무실습을 하게 되는 건보공단본부는 강원도 원주시 혁신 도시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학교가 위치한 강원도 춘천시에서 통근을 하였습니다. 떨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1시간 남짓 지나 원주터미널에 도착하였고 택시를 이용하여 원주혁신도시 내의 건보공단본부로 향하였습니다.

건보공단에 도착하여 실무실습생 소집장소인 건보공단 10층에 위치한 법무지원실 소회의실에 도착하니 다른 학교의 실습생분들과 실습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만나볼 수 있었고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실무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3. 다양하고 알찬 구성

건보공단의 실습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보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의 다양한 건강보험관련 제도에 대해 각 부 부장님 및 차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보공단이 진행하는 여러 형태의 소송들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님들이 수업을 진행해



우리가 수업에서 다룬 것은
임의비급여소송, 구상금청구소송,
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담배소송 등 이었고
관련 사례와 기록등을 과제로
하면서 더 공부하게 되고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주셨습니다.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소송에서 기본이 되는 법률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하여 민법, 행정소송법 등 법률들을 살펴보고 각 사건에 해당하는 기본법리와 판례 등을 배운 후 실제사건을 토대로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과제를 받아 작성하고 제출하면 그에 대해 담당 변호사님들이 첨삭해주시고 강평해주시는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위 수업에서 건보공단은 매우 다양한 소송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다룬 것은 임의비급여소송, 구상금청구소송, 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 담배소송 등 이었고 관련 사례와 기록등을 과제로 하면서 더 공부하게 되고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4. 교육시간 이외의 시간도 꿀

점심시간은 건보공단본부 지하의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하였고 27층의 구내 카페에서 실습생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실습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애정을 쏟으시는 편이라 소송이 많고 출장이 많아 바쁘신 와중에도 실습생들과 함께 커피 한 잔 할 시간을 내주시고, 교육이 끝난 후 식사도 하면서 사적인 질문도 많이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진로 등에 대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건보공단 실무실습 추천합니다

건보공단이 강원도 원주에 있음을 알고 실무실습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니 다른 실무실습기관들에 비해 지리적으로 열세입니다. 하지만 원주는 생각보다 멀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강원도하면 떠오르는 휴양지 느낌에 심리적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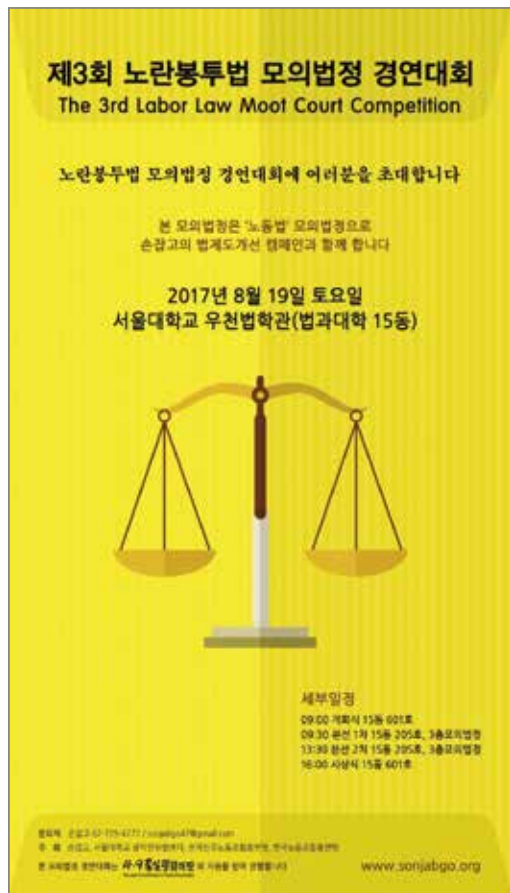
저 이외에 서울, 대구, 대전 등 다양한 거주지의 실습생들이 실무실습에 참여하였는데 근처에 숙소를 마련한 분도 계셨고 서울에서 통근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서울에서의 통근은 건보공단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등 공단측의 배려도 있었습니다.

보건의료관련의 전공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부장, 차장님들의 강의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배울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제도에 관심만 있으시면 됩니다. [창](#)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노동법, 특히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 배상 및 가압류를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연대회이다. 본 대회는 시민모임 ‘손잡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올해로 3회를 맞이했다. editor 박소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재판부: 재판부는 두 개의 조로 나누며, 각 조별 재판부는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사위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한 판사, 변호사, 교수 등 6인으로 한다.

1. 목적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이론, 변론능력 배양 등을 통해 법조 실무 교육효과와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참가자격

로스쿨 재학생(휴학생 포함, 이하 같다) 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할 수 있음. 단, 구성원 3인은 동일 로스쿨에 재학 중이지 않아도 참가 가능.

3. 프로세스

서면심사

- 참가 팀은 공고에 제시된 문제에 지시된 사항에 따라 준비서면, 변론요지 등 수행 과제의 원고와 피고의 각 서면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 집행위원회는 참가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한 팀의 수와 관계없이 서면심사 절차를 거친다.
- 서면심사 결과 상위 9개 팀을 본대회 진출 팀으로 한다.

본대회

- 대진표에 따라 본대회 경연 팀의 지위가 부여되고(원고, 피고), 경연 팀의 지위에 해당하는 제출된 서면을 상대방 측 경연 팀에 송부한다.
- 경연팀은 서면과 화상자료(PPT)를 제출한다.
- 경연팀은 변론 준비를 거친 후 서면과 화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두 변론을 중심으로 상호 토론 형식으로 변론을 실시한다.
- 본 대회의 변론시간은 원고, 피고 각 15분씩으로 하며,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15분 이내의 질문, 응답 시간을 갖는다.

4. 평가 항목

- 가. 문제의 이해도: 쟁점 파악 능력, 논리력 등
- 나. 서면 작성의 적정성: 구성, 법률소양, 설득력, 명료성, 문장스타일 등
- 다. 변론의 적정성: 화술, 동작, 전달력, 독창성 등
- 라. 법정 태도의 적정성: 예절, 법정 자세 등
- 마.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이해력, 정확도, 순발력 등
- 바. 일반교양: 용어의 선택, 문화 및 역사 소양 등
- 사. 대회 규정 및 절차 준수의 적정성

5. 시상

구분	선발팀	시상내역	제3회 수상팀
최우수상(국회의장상)	1팀	200만원	충남대(서범진, 고혁준, 이수열)
우수상(국회환경노동위원장상)	1팀	100만원	고려대(강서진, 이정선, 김수연)
장려상(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상)	2팀	각 50만원	이화여대(김한라, 노다은, 조나현) 이화여대(황혜진, 장하얀, 조현주)
본선 입상(노란봉투법상)	4팀	각 20만원	이화여대(황새별, 이효림, 석승민) 한양대(윤수빈, 박태준, 노동환) 한양대(송석민, 조세현, 장혜민) 이화여대(안신영, 김정진, 양지영)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문제】

파업 후 드러난 노조파괴 시나리오, 손실 책임은 누가 질까?

제3회 노란봉투법 경연문제의 주제는 유성기업과 창조건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손해가압류였다. 가상의 ‘동화산업 주식회사’라는 반도체 관련 제조업 회사가 노조와 노조간부 개개인에게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가정했다. 동화산업이 제조업에서 부동산개발업으로 업종전환을 결정한 데 대해 노조가 단체교섭에 반하는 회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를 펼쳤다고 가정하고, 사측이 노무사를 통해 자문을 받은 가정에서 작성된 ‘신노조 설립 시나리오’와 ‘직장폐쇄 대응방안’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주요쟁점 : △파업, 직장 검거 등의 쟁의 행위가 정당한가, △2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이 적정한가, △노동권의 관점에서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정당한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내용의 자문과 문건은 정당한가



사진 출처: 손잡고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최우수상팀 충남대학교 로스쿨 8기 서범진, 이수열, 고혁준 학생



Q. 수상 소감은? 수상할 것을 예감했나?

▶ 팀원 셋 모두 노동변호사가 되고자하는 사람들이다보니, 노동법 현안을 다루는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로스쿨 교육에 여러 장점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에 와서는 합격률 문제 등으로 점점 더 획일적인 '시험공부'로 수렴해가는 것 같다. 이번 대회는 그런 팍팍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준비했다. 대회 결과는 우리가 들인 열정에 비례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Q. 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팀원 구성은 어떻게 한 것인가? 팀원들 모두 평소에 노동법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관심이 많았나?

▶ 노동법 수업과 학회에서 얼굴을 톤 뒤, 대회 훨씬 이전부터 자주 만나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곤 했다. 지난 겨울부터는 아예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노동리뷰>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가 발간하는 연간 <노동판례리뷰> 등을 같이 읽는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열었다. 서로가 어떤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

는지 잘 알고 있는 사이다보니, 이번 대회 홍보를 보고 자연스레 같이 참가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고혁준은 로스쿨에 오기 전에 직접 공장에서 노동자로서 일했던 경험을 계기로 노동 문제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됐다. 서범진과 이수열은 대학에서 학생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면서 노동운동에 연대하는 활동을 해왔다. 로스쿨에 올 때부터 셋 모두 장래 노동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런 모의법정 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반가웠다.

Q. 이번 경연대회의 문제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손배가 압류에 관한 것이었다. 서면 심사는 어떻게 준비했으며,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은 없었나?

▶ 먼저 주어진 문제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은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에 비추어 다룰 수 있는 쟁점들의 목록을 뽑았다. 그리고 각각의 쟁점과 관련해 노동법 학자들과 선배 노동변호사들이 쓴 연관 논문내지 판례 평석들을 검토했다. 또, 문제와 유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사건들을 떠올리며 그 판례들을 가능한 만큼 수집했다.

사실 1학기 기말고사가 다른 로스쿨에 비해 늦게 끝났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많이 없었다. 소장과 답변서 작성에는 1주일 정도밖에 시간을 들일 수 없었는데, 평소에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런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또, 소장과 답변서 두 가지를 동시에 써야했던 것도 확실히 시간 측면에서는 얼마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과 답변서를 동시에 써보는 것은 무척 유익했다.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항변 또는 부인, 그에 대한 원고의 재대응 등 논리를 변증법적으로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가 더 풍부하고 정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소장과 답변서를 모두 쓰다보면, 쌍방의 주된 무기가 무엇이 되는지 알 수 있으므로 그것을 방어할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생이라면 다른 의미에서도 반드시 원피고 모두의 입장을 대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비로소 '법적 경험'을 통해 지금의 사법질서가 노동과 자본의 입장 중 어느 편에 더 기울어 있는지 그 현실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Q. 서면심사의 포인트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인가?

▶ 좋은 서면을 쓰기 위해서는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사회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글쓰기와 법 문서 작성에는 차이가 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정당한 주장이라도 그것을 법의 논리로 정당화하지 못하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판례는 필수적인 무기가 된다.

물론, 노동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판례에 갇히기보다 그것을 뛰어넘으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판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판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 같다. 그래야 문제적 판례의 법리적 빈틈을 찾아낼 수 있고, 또 다른 판례를 무기 삼아 문제적 판례에 대항하는 법 논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로스쿨에서 수험 준비에 집중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많은 학생들이 판례를 요약된 내용만 읽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습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판례 전문을 읽으면 요점만 볼 때 이해했던

것과 정반대 결론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Q. 구두변론을 해야 하는 본대회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웠나?

▶ '유체이탈'과 '메소드 연기'를 염두에 뒀다. 원고 대리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정치적 신념에는 많이 어긋난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대회인 만큼, 또 피고 대리인 측에 날카로운 상대가 되어주어야 상대 쪽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원고 변론 시에는 확실히 '유체이탈'하기로 했다.

또, 법정에서 서는 동안은 우리가 학생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생각을 가지려 노력했다. 재판부가 우리 논리의 취약점을 지적하거나 공세적 질문을 던져도, 우리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선배 노동 변호사들에게 배우러온 '학생'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헛소리 물려서지 않으려 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 특별히 없었다.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방학동안 수험 공부를 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끔 압박했을 뿐이다. 그러나 대회 준비 과정이 준 보람과 즐거움이 압박감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았다.

Q. 상금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가?

▶ 상금의 일부를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투쟁 기금으로 보낼 생각이다. 대전에 장기투쟁사업장으로 거액의 손배소를 당한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있다.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반올림'은 강남역 8번 출구 삼성 사옥 앞에서 거의 2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일단 이 곳들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

Q. 4회 경연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로스쿨 원우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 우리의 경우는 평소 학교에서 김소영 교수님의 노동법 수업을 충실히 들은 것이 대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 평소 수업에 충실히 기본 법리를 다지고,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얼마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이 대회 출전이 더 없이 뜻깊고 유익한 기억으로 남게 되리라 확신한다. [창](#)

성인예방접종

조비룡 교수

서울의대 국민지식센터
가정의학과

요즘 건강 관련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면역 기능’이다. 면역 기능은 외부 이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세균 뿐 아니라 암과 같은 질병의 방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면역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폐렴이나 대상포진과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커지고, 암의 발생이 늘어나게 된다.

떨어지는 면역기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방접종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맞아야 할 중요한 예방접종 4가지; 독감, 폐렴사슬알균, 대상포진, 파상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65세 이상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홍보물



1. 독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독감백신의 생산량이 많지 않아 어린 아이들과 임산부, 노인과 같이 취약계층을 주요 접종 대상군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자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맞을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이를 ‘집단면역효과’라고도 하는데, 일정수 이상의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을 해도 면역기능이 낮은 노인들이나 사정상 맞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방어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젊고 건강하여 독감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후유증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허약한 노인과 소아, 임산부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집단면역효과’를 위해 서라도 맞아 주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감은 주로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유행한다. 따라서 백신은 독감 유행 전인 9월에서 12월까지 접종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보통 백신은 접종 후 2~3주 후에 면역력이 생긴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심한 부작용을 나타낸 적이 있거나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접종 전에 미리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WHO는 2013년부터 두 가지 계통의 B형 독감 바이러스주를 포함하는 4가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이후 4가 독감 백신이 도입되어 접종되고 있다. 독감의 항원은 매년 바뀌고,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으므로 매년 접종해야 한다.

2. 폐렴사슬알균

폐렴사슬알균은 한 때 폐렴구균으로 명칭하던 감염증으로 5세 미만에서 많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감소하였다가 다시 50세 이상에서 증가하기 시작한다. 폐렴사슬알균에 대한 백신은 ‘13가 단백결합백신’과 ‘23가 다당류백신’의 두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효과가 달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일정표		대상연령의 모든 성인	해당 위험군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75~79세	30~39세
인플루엔자	Flu	매년 1회 (30~39세)	매년 1회 (30~39세)
파상풍/테타네 / 디프테리아/	Td/Tdap	타 1회나 맞지 1회 1회, 이후 10년 1회로 접종 (30~39세)	타 1회나 맞지 1회 1회, 이후 10년 1회로 접종 (30~39세)
폐렴구균	PPSV	75~79세에 1회 (30~39세)	1회 (30~39세)
A형간염	HepA	2회 (30~39세)	1회 (30~39세)
B형간염	HepB	3회 (30~39세)	1회 (30~39세)
수두	Var	1회 (30~39세)	1회 (30~39세)
홍역/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MOR	1회 (30~39세)	1회 (30~39세)
인유두종바이러스	HPV	1회 (30~39세)	1회 (30~39세)
대상포진	Zoster	1회 (30~39세)	1회 (30~39세)
수막구균	MCV	1회 (30~39세)	1회 (30~39세)

을 하거나, 둘 다 맞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65세가 되면 23가 다당류백신을 맞는 것이 좋는데, 이때는 국가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만성질환이 있거나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13가 백신을 추가로 맞는 것이 좋다. 그런데, 두 종류의 백신을 같이 맞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65세 이전부터 맞는 것이 좋고, 백신의 순서 또한 13가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이 더 추천되기 때문에 꼭 먼저 자신의 주치의와 상의를 하도록 하자.

3.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사망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약으로도 잘 조절되지 않아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는 ‘포진후 신경통’이라는 합병증이 무서운 질병이다. 그런데, 이런 합병증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일반적으로는 60세 때에 접종하기를 권장하지만, 당뇨, 암, 류마치스 질환과 같이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일 경우는 50세 때부터 접종하기도 한다. 대상포진을 한 번 앓았던 사람들은 의사와 상의

후 접종하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1년이 지난 뒤에 접종하게 된다. 평생 한번만 접종하면 된다.

4. 파상풍 – 디프테리아

파상풍균은 주로 흙이나 녹과 같은 환경에 살기 때문에 다친 경우 문제가 된다. 최근 주말농장, 등산 등 여가활동을 즐기는 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여전한 백신이다. 최근 영유아에서 백일해가 다시 증가하는데, 이를 옮기는 사람들이 가족들로 밝혀져 손녀, 손자가 태어나거나, 평생 한번은 백일해가 추가된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 하므로, 이런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접종하도록 한다.

예방접종은 건강할 때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 후유증도 적으므로, 몸 상태가 좋을 때 하는 것이 추천된다.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부작용을 보상하여주는 제도가 있다. 접종 후 주사 맞은 곳의 간단한 통증이나 붓기는 해열진통제나 냉찜질로 해결되지만, 부작용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정도라면 의사와 상의하여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창](#)

저자 소개

- 서울의대 졸업
- 전공 : 건강증진, 건강노화
- 현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국민건강지식센터 장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역사의 그림자 - 금동미륵반가사유상 金銅彌勒半跏思惟像



국보 제83호

어느 날 문득 일을 하다가 오늘처럼 청명한 날에는
목혀두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을 때가 있습
니다. 그럴 때 저는 가끔씩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이 반가사유상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사색에 잠겨
있는 온화한 얼굴과, 유려한 곡선의 신체, 떨어지는
옷자락들을 보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감동이 밀려옵
니다.

반가사유상의 원래 이름은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이고, 금동으로 만든 미륵보살이 다리를 반을 접고
사유하는 불상이라는 뜻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유명한 반가사유상이 2점 있습니다. 독채의 전시실에
별도로 전시되는데, 항상 1점만 볼 수 있습니다. 유물
보존을 위하여 1점씩 돌아가면서 전시한다고 하네요.
반가사유상들의 특징은 눈을 반쯤 뜨고 열은 미소를
띤 채 깊은 사유에 잠겨있는 것입니다.

미륵보살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부처가 깨
달음을 얻기 이전인 태자시절에 인생의 무상을 느끼
고 중생구제라는 뜻을 품고 고뇌하는 '태자사유상',
즉 출가하기 전의 태자의 모습이라는 설을 제기했습
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석가모니가 열반한 후 인간
세상에 나타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하겠다는 '미래불', 즉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이
라는 설을 내놓았습니다.

불상은 옷이나 머리관, 손가락 등 외형적 특징에 따

라 그 유래처와 이름을 추측하는데 반가사유상의 출토시기인 삼국시기는 중
국 위진남북조 시기로 미륵신앙이 유행할 때이므로 미륵보살일 확률이 높습니
다. 또한 이시기 한반도 미륵상은 어느 불교교리와 함께 전래되었는지도 미스
터리인데, 삼국시대 왕족불(호국불교) 사상에 중국에서 유래된 미륵신앙이 수
용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특히 신라에서 화랑을 미륵불의 화
신으로 여겼다는 점도 중요한 점이지요. 삼국통일의 과정에서 수많은 전란을
겪은 민중들이 미륵불을 통해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염원했다고 하네요.

두 점은 대한민국의 국보로 각 78호, 83호이며 제작 시기는 삼국시대 6세기
중엽입니다. 지금까지는 삼국시대 중에서도 신라 유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출토된 지역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일본인 골동품상들이
일본의 도굴꾼들에 의하여 도굴된 두 점을 입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점
의 존재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문화재 전체 현황을 파악해 이후 약탈의
대상이 되게 만든 세키노 다다시 교수¹⁾의 '대정원년조선고적조사약보고'(조선
총독부, 1914)에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78호는 일본인 골동품상이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조선총독에게 상납한 것을
총독이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83호에 대한
일제강점기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입수기록에는 "1912년 이왕가 박물관이 일
본인 골동품상(카지야마 요시히데)에게 2600원(현재 가치 약 26억 원)을 주고
구입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카지야마 요시히데가 죽을 때까지도 출
처를 숨겼기 때문에 83호의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불법적인 방법으
로 취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이왕가 박물관이 취득할 때 83호
는 두꺼운 호분이 칠해져 있고 꼬불꼬불한 수염에 까만 눈동자, 빨간 입술이
칠해져 있었다는 기록을 볼 때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져 있던 것을 그가 훔쳤
다고 평가되지요.

이렇게 출처가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삼국시대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이후 세키노 다다시 교수는 1933년 발표한 논문에서
경주시 남쪽 오릉 부근 폐사지에서 출토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일본 학자
인 이네다 하루미즈는 1915년 발표한 논문에서 1910년 충청도 벽촌에서 발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둘이 대립을 하였습니다.

특유의 미소 등 외형적 양식에 의거해 백제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
고, 일본 국보 1호인 고류사 목조반가사유상이 신라에서 왔다는 기록을 토대

1)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867~1925) 일본의 동양건축가이자 미술사학자. 동경제국대학의 교수를 지냈으며, 1902년 이후 한국에서 미술과 건축을 연구하였다. 1918년에는 당나라 때의 불교유적인 천룡산 석굴을 발견하는 업적을 세우기도 했다.



국보 제78호

저자소개



김별다비

경감, 변호사, 큐레이터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췌대박물관 큐레이터, 아르코 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엘지전자 개인정보 compliance task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로 3년여 근무하다 예술인의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에 뜻을 두고 2기 경감 특채로 선발됐다. 3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변론부문 전국우승을 한 바 있다. 대안공간 정다방, 리각 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술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월간 BizArt지와 한국박물관협회지에 미술법 칼럼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반가사유상은 약 38점이 있으며
금동 24점이 있습니다.
국보 78호와 83호 두 점 외에
국보 118호 평양 천리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보물 331호 백제 방형 대좌 금동반가사유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반드시 83호나 78호가
같은 곳에서 출토 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본 국보1호, 고류사 목조반가사유상

로 유사한 양식인 78호와 83호 또한 신라의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이 유사하지만 각각 다른 국가의 것일지도 모르지요. 백제에서 신라로 전래되어 신라에서 유사하게 제작되었거나 아니면 일본의 목조반가사유상처럼 백제에서 신라로 선물로 주어졌거나요. 또한 반론으로 신라에서 넘어왔다는 불상 1점이 그 고류사 목조반가사유상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조형적 특징으로 인해 신라 시대의 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백제적인 요소로 인해 백제 양식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신체와 천의의 힘찬 기세, 고구려에서 특히 중국의 북위와 동위시대 양식의 불상이 크게 유행한 점,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 양식과 흡사한 점으로 미루어 고구려 불상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니 어느 특정 국가를 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세 점을 면밀히 살펴보면 얼굴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 반가사유상은 약 38점이 있으며 금동 24점이 있습니다. 위 두 점 외에 국보 118호 평양 천리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보물 331호 백제 방형 대좌 금동반가사유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반드시 83호나 78호가 같은 곳에서 출토 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78호 반가사유상은 조금 화려한 보관을 쓰고 83호 반가사유상은 단순한 보관을 쓰고 있는 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명을 보면 78호의 경우 높이가 83.2cm입니다. 우선 화려한 보관이 눈에 띄니다. 마치 탑처럼 보이는 장식이 솟아 있는 이 보관은 태양과 초승달을 결합한 특이한 형식으로 일월식(日月蝕)이라고 합니다. 일월식의 보관 장식은 원래 사산조 페르

시아의 왕관에서 유래, 발전하여 비단길을 통해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보살상의 보관으로 차용되었는데, 인도 간다라의 보살상이나 중국 돈황석굴, 운강석굴, 용문석굴 등지에서 다양한 예가 나타납니다.

정면에서 이 반가사유상을 보면 허리가 가늘며 여성적인 느낌이 들지만 측면에서 보면 상승하는 힘이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탄력 넘치며 신체의 곡선이 강조되었고 양쪽 어깨로부터 끝이 위로 올라와 날카로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는 천의 자락은 유려한 선을 그리면서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양 무릎과 뒷면의 의자 뒷개에 새겨진 주름은 타원과 S자형의 곡선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무쌍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83호의 경우 높이가 93.5cm입니다. 머리에 3면이 둥근 산 모양의 관(冠)을 쓰고 있어서 '삼산반가사유상(三山半跏思惟像)'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얼굴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 정도로 풍만하고 눈두덩과 입가에서 미소를 풍기고 있습니다. 상체에는 옷을 걸치지 않았고, 목에 2줄의 목걸이가 있을 뿐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왼발은 내려서 작은 연꽃무늬 대좌(臺座)를 밟고 있고, 오른발은 왼쪽 무릎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왼손으로는 오른 발목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를 무릎에 얹었으며, 손가락으로 턱을 살며시 괴고 있습니다. 하반신을 덮은 치맛자락은 매우 얇게 표현하여 신체 굴곡이 잘 드러나며, 연꽃무늬 대좌를 덮은 옷자락은 깊고 자연스럽게 조각되었습니다. 왼쪽으로 옥을 꿰 치마의 띠가 내려가고 있으며, 머리 뒷부분에는 긴 촉이 달려 있어 광배(光背)를 꽃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는 지역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시기적으로 78호에 비하여 83호가 더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점에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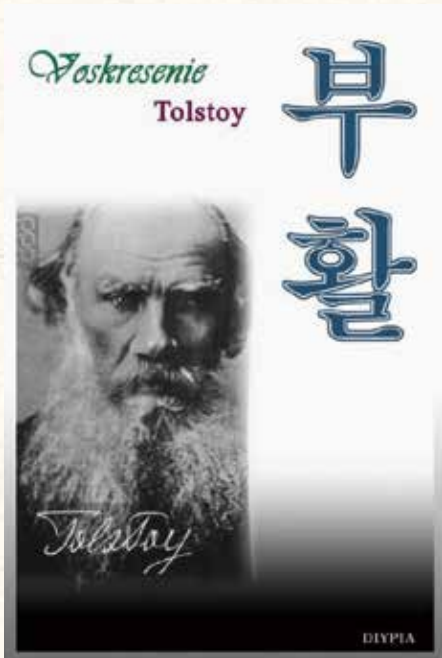
금동 불상은 내부는 흙으로 채운 중공식 주조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1미터에 가까운 불상들임에도 불구하고 구리의 두께가 2~4mm로 얇고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큰 주물을 만들 때 전체적으로 얇고 고르게 두께를 맞추기 어렵다고 합니다. 당시의 고도의 주조기술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사연이 이러하다 보니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유실된 문화재가 참 많으며 그것이 아직도 우리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하면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지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창**



復活

Lev Nikolayevich Tolstoy



아아! 불쌍한 여인 카류사(다른 이름 마슬로바).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매춘부가 된 그녀는 코냑에 독을 몰래 집어넣었다는 누명을 쓰고 4월 28일 형사재판정에 서게 됐다. 그녀의 눈앞에 지금 옛사랑의 남자 네홀류도프가 배심원으로 앉아있다. 지금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 진정 그녀는 자신이 군대시절에 고모집에서 만났던 아리따운 여성 카류사인가. 그가 카류사를 만났던 때는 마침 예수 부활대축일이었고, 스펜서의 사회평론과 헨리조지의 논문을 읽고 토지사유제를 반대하는 논문을 작성하던 시간이었다. 나흘 동안 머물렀던 그곳에서 네홀류도프는 그녀를 유혹해 임신까지 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부활절 아침 충만한 삶과 기쁨으로 미소 짓던, 사랑에 넘치는 눈길로 그를 천천만만하게 바라보던 그녀는 지금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유곽에 들른 시베리아 상인 스멜리코프와 함께 보냈던 그날 밤, 카류사는 여관의 심부름꾼 카르딘킨의 권유에 못 이겨 수면제로 알고 있던 가루약을 코냑에 타서 그에게 먹였다.

저자소개



박상흠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동아대 로스쿨 재학시절 편집장을 맡은 일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체특성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영입은 쟁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쓰는 일과 쉽게 설명하는 법률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장차 나의 꿈은 법률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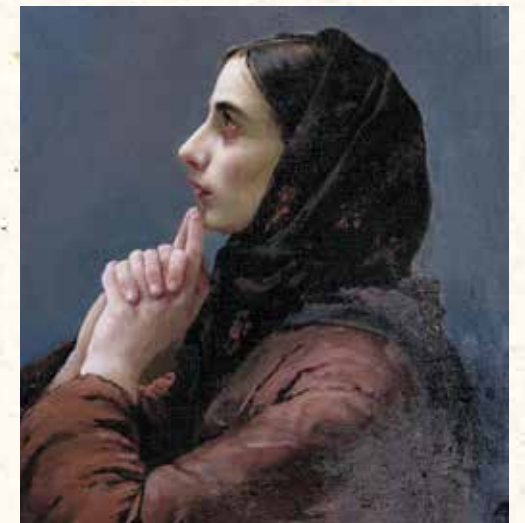
그러나 재판장이 읽은 기소장의 내용은 진상과 거리가 멀었다. “피고인은 상인 스멜리코프의 열쇠를 가지고 마르비타니아 여관방으로 가서 여행 가방에서 은화 2,500 르블과 반지를 훔쳐내어 훔친 물건을 농민 시몬 페트로카 카르딘킨과 평민 예브피미야 이바노브나 보치코바와 나눠 가진 뒤 스멜리코프와 다시 마브리타니아 여관방으로 갔고, 미리 독을 탄 술을 스멜리코프가 마시게 하여 그를 죽게 한 죄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마슬로바가 고아였기 때문에 범죄의 싹을 가지고 있었고 교양 있는 귀족의 가정에서 자라났음에도 은혜

를 잊고 쾌락에 빠져 유곽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이것이 본 재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는 범죄의 원인을 유전적인 요인에서 찾았다.

배심원단은 치열한 토론 끝에 절취할 의도가 없었고 금품도 훔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피로에 지쳐버린 그들은 답신서에 ‘독약은 주었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잊어버렸다. 답신서의 내용을 본 판사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배심원들은 ‘절취할 의도가 없었음’이라는 제1단서를 붙였으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음.’이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살해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이지만 마슬로바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자신은 무죄라며 통곡하는 마슬로바를 바라보며 네홀류도프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순수한 카류사의 순결을 빼앗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게 된 그는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뛰기 시작한다. 재판장을 만났다. 재판장의 말로는 그들은 답신서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한다. 답신서에 ‘살해의 의도가 없었음.’이라는 한마디 단서만 있었으면 그녀는 무죄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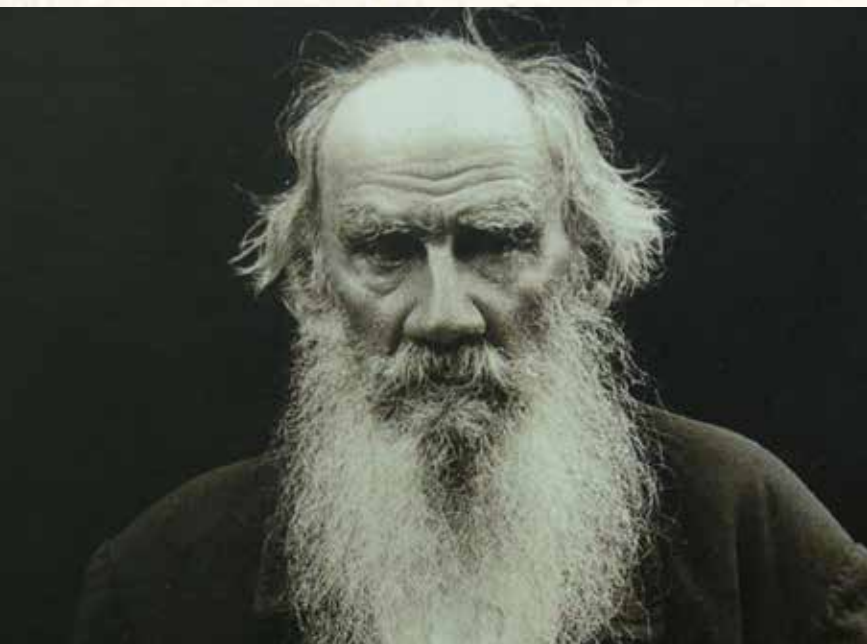
그는 저명한 변호사 파나린을 찾아가 변론을 부탁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더듬어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유부녀 마리야 바실리에브나와의 관계를 끊고 미시와의 결혼도 포기했다. 또 고민했다. 토지 사유가 비합리적이라는 사고방식과 어머니의 유산을 소유한다는 모순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카류사에게 어떻게 속죄할까. 많은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부당한 판결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녀를 만나 용서의 눈물을 흘려야겠다. 아니 필요하면 그녀와 결혼하자. 네홀류도프는 카류사가 살인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만나는 허가장을 받기 위해 검사를 찾아간 그는 재판의 광경을 보며 인간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며 나쁜 환경이 불행한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게 됐다. 범죄의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웠다. 사실 카류사는 네홀류도프로부터 버림받은 후 신과 선을 믿지 않게 됐고, 쾌락만이 행복을 가져준다고 여겼다. 카류사에게 입힌 죄를 속죄하기로 결심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게 됐다. 재판의 결과를 보고 허술한 재판제도에 실망했던 탓일까. 교도소의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들 중 필시 카류사와 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또 그들은 굶주림, 법의 무지, 오심의 희생자들이었다. 가난이 범죄자를 양성한 것이다. 법은 가난한 자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주인공은 죄인인 인

그는 인간의 법률이 약자의 아픔은 눈감아 버리고 강자의 불의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았다. 재판제도에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게 됐다.



간이 인간의 죄를 다룬다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인간의 법률이 약자의 아픔은 눈감아 버리고 강자의 불의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았다. 재판제도에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게 됐다.

교도소에 찾아간 그는 눈물로 카류사에게 용서를 구했다. 속죄하러 왔다는 그의 말에 카류사는 ‘다



지나간일인데 뭘그러느냐며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을 무죄로 풀어달라는 카뮈샤. 재판정에서 그녀를 불쌍하게 보았던 네홀류도프의 눈에 이상하게도 카뮈샤가 추하고 푸석해보인다.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자 카뮈샤는 이상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필요하면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말하기를 주저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카뮈샤는 매춘부로서 인정받고 남성들에게 주목받는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상한 인생관을 갖게 됐다. 면회를 마친 네홀류도프는 파나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했다. 변호사는 위 판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 배심원이 답신서에 여타의 살해동기가 없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금품을 흙친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모순이 발견됨에도 재판부가 다시 답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지사 마슬렌니코프를 만나 자유롭게 교도소의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이미 교도소의 유명인사가 된 네홀류도프는 수감된 이들에게 고통을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도 하게 된다. 그는 과실로 인해 수감된 130명의 수감자들을 고통에 빠뜨린 법제도 나아가 사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다. 네홀류도프는 고위층의 인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만나는 이들마다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에서 유력층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고위층마다 그를 환영했다. 또 그의 이모부는 전 국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원로원의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 카뮈샤는 그런 그의 영향력 때문에 병원에서 보조원으

로 일할 수 있게 되어 한결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사랑의 힘 때문인지 카뮈샤는 술도 끊고 안정적으로 변화되어갔다.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네홀류도프.

그는 범죄의 기원을 유전이 아닌 환경에서 찾았다. 나아가 카뮈샤의 재판을 경험하면서 농노제와 토지사유제도가 사회 병폐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전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헨리 조지의 말대로 토지는 물과 공기 태양과 마찬가지로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조지의 의견대로 단일세를 도입하는 토지제도를 정착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도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위층 인맥과 접촉하며,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다 쏟았다. 그러나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그에게 마슬로바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그가 농촌의 농노들과 토지가 없어 도시로 쫓겨 건물을 짓는 현장의 일꾼들을 찾아가 토지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고민하고, 교도소의 수감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보며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어쩌면 자신의 지난 과오를 씻기 위한 노력일 뿐만 아니라 카뮈샤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원로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네 명의 원로원과 차장 검사 셀레닌. 그리고 마슬로바측의 변호사 파나린. 셀레닌은 네홀류도프와 우정이 깊은 옛친구였다. 파나린은 네홀류도프와 상담한 내용과 같이 원판결의 모순과 잘못된 법률해석을 지적했다. 셀라닌 검사는 상고이유가 희박하다며 상고기각을 주장했다. 원로원이 내린 결론은 상고기각. 재판 후 네홀류도프는 셀라닌을 만나 부당한 판결에 대해 항의하지만 원로원은 사건자체를 다룰 수 없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슬로바가 근무하는 병

원으로 찾아간 네홀류도프는 기각사실을 알려줬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기쁜 듯 한 목소리를 내며 “그럴 줄 알았어요.”라고 답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황제에게 보낼 청원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네홀류도프를 만난 후 조금씩 변화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교태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결혼만큼은 거절했던 이유는 네홀류도프가 불행해지리라는 생각에서였다. 네홀류도프는 시베리아로 출발하는 카뮈샤와 동행했다. 시베리아를 향하는 기나긴 죄수들의 행렬. 그는 피약별 아래의 길을 걷다 쓰러지는 죄수들을 자신의 마차에 싣고 걸어간다. 12명의 죄수는 죽었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걸어가는 네홀류도프를 반가운 얼굴로 환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료 죄수들을 도와달라고 그에게 부탁하기까지 했다. 마슬로바의 인생관이 또 달라진 것은 숙영감옥에서의 생활이었다. 수많은 정치범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몬손, 그는 계급적인 특권은 사라져야 하며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신조를 가진 젊은이였다. 마리아 파블리브나는 부유한 가정의 장군의 딸로서 삼 개 국어를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며 상냥한 모습으로 대했고, 그 모습을 본 마슬로바는 경외감을 갖게 됐다. 귀족이지만 민중을 위해 자신들의 특권과 자유, 생명을 희생하고 귀족들에게 맞선 이들은 카뮈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게 하였다. 오랜 감옥 생활에서 민중의 억압 받는 삶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의 삶도 이같은 속박에서 풀려나기를 고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몬손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이후 셀라닌으로부터 네홀류도프는 편지 한통을 받았다. 마슬로바 사건을 다시 검토해보니 부당한 판결을 목격하고 그를 돕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특사 지령서가 동봉되었다. 황제 폐하는 상신된 보고에 의거하여 마슬로바의 청원에 원판결의 징역형을 취소하고 시베리아의 원역지가 아닌 지방으로 거주를 변경시킬 것을 하명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쁜 소식을 듣고 카뮈샤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녀는 시몬손과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

부활 復活 Voskresenie

1899년에 간행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의 대표적인 장편소설로《전쟁과 평화》(안나 카레니나)와 더불어 그의 3대 작품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작품은 그의 친구이자 저명한 법률가인 코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며, 당초에는 〈코니의 수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네홀류도프라는 귀족청년이 배심원으로 출정한 법원에서 자신의 유린으로 타락의 길에 빠지고 살인죄도 혐의를 받게 된 카뮈샤를 다시 만나게 된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여 영혼의 부활을 이루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를 전달한다. 그는 생각했다. 시몬손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희생을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의 행복을 위해 마음에도 없는 시몬손과 결혼하려는 것이라고. 카뮈샤는 네홀류도프를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속죄의 목적으로 머뭇거리며 의무적인 결혼을 하려는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떠나 버린 카뮈샤를 보며 네홀류도프는 몹시 슬퍼고 부끄러웠다. 그는 오랜만에 성정을 꺼내들어 펼쳐보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발견하게 됐다.

법률제도와 사회제도에서 범죄의 기원을 찾았던 카뮈샤가 떠나간 이후 그는 자신의 내재된 죄의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산상수훈을 통해 살인뿐만 아니라 성도 내서는 안 되며, 간음뿐만 아니라 흠한 마음도 품지 말아야 하며, 오른쪽 뺨뿐만 아니라 왼쪽 뺨까지 대라는 가르침을 받게 된다. 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출발을 하기로 결심하며 소설은 끝을 맺는다.

법정에서 카뮈샤와의 재회가 주인공을 불완전한 법과 부조리한 현실에 눈뜨게 했다면 그녀와의 작별은 그의 시선을 제도가 아닌 인간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죄인은 죄를 처벌할 자격도, 죄를 제거할 능력도 없기에 이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은 오직 인간의 부활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소설의 결말에서 부활한 자는 누구인가. 카뮈샤인가 네홀류도프인가. 톨스토이가 부활한 사람으로 설정한 인물은 죄짓지 않은 카뮈샤를 죄수로 만든 장본인이 본인이라는 죄책감을 떠안고 여기에서 해방되기 위해 몸부림 친 네홀류도프가 아닐까. 나아가 법률가의 역할 중에 부활의 소식을 법정에서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는가. **창**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 중 하나로 꼽히는 덴마크인들의 삶의 방식인 '휘게(Hygge)'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다. 휘게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한 채 시간을 보내는 삶의 자세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워놓고 차를 마시는 순간 등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휘게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니, 오늘은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스터엑트 첫 내한공연

동명의 영화를 바탕으로 만든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스터 엑트〉가 내한한다. 영화 〈시스터 엑트〉는 1992년 개봉해 세계적으로 흥행했으며, 프로듀서를 맡은 우피 골드버그는 원작 영화에서 주인공 들로리스 역을 맡은 바 있다. 이번 한국 내한공연은 아시아 순회공연의 하나로 브로드웨이 출연진이 함께한다.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한국, 태국, 홍콩까지 총 7개국에서 아시아투어를 가질 예정이다. 2009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한 뮤지컬 〈시스터 엑트〉는 2011년 미국 브로드웨이에 입성했다. 그해 토니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극본상, 음악상 등 5개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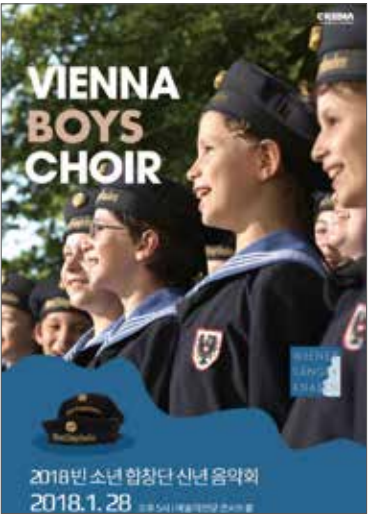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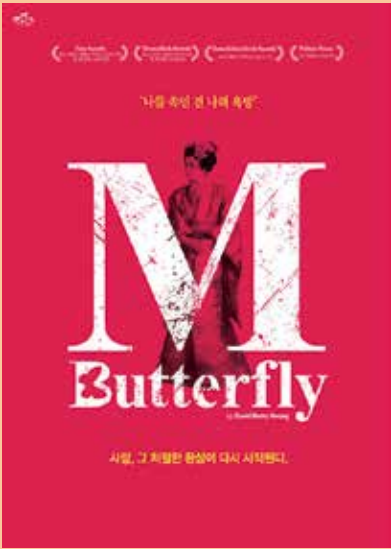
공연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공연기간 2017.11.25.(토) ~ 2018.01.21.(일)
티켓가격 VIP석_14만원, R석_12만원, S석_8만원
홈페이지 www.musicalsisteract.com/

Musical

중국계 미국인 극작가 데이비드 헨리 황의 대표작 M Butterfly 엠. 버터플라이

연극 〈엠. 버터플라이〉는 중국계 미국인 극작가 데이비드 헨리 황의 대표작으로 1986년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프랑스 영사 '버나드 브루시코'의 충격적 실화를 모티브로 무대화한 작품이다. 실화를 기반으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차용해 서양이 동양, 특히 동양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등을 비판하는 동시에 인간의 욕망까지 폭넓게 다룬다. 국내에서는 2012년 '연극열전4'의 두 번째 작품으로 초연해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네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엠. 버터플라이〉는 어려운 이야기를 쉽지만, 주제 의식을 관통하는 연출로 유명한 김동연 연출이 맡았다.

공연장소 아트원씨어터 1관
티켓가격 R석_5만 5천원, S석_4만원
공연일시 2017.09.09.(토) ~ 2017.12.03.(일)
홈페이지 www.thebestplay.co.kr/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공연기간 2018.01.28.(일) 17:00
티켓가격 R석_10만원, S석_8만원, A석_5만원
홈페이지 www.sacticket.co.kr/

2018 빈 소년 합창단 신년 음악회 VIENNA BOYS CHOIR

2018년,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이자, 보이 소프라노의 대명사인 빈 소년 합창단이 520주년을 맞는다. 1498년 오스트리아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궁정교회 성가대로 시작한 빈 소년 합창단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단과 함께 빈 궁정악단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이다. 올해로 5년째 이어오고 있는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는 작년 5개 도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남녀노소, 전 연령에 걸친 인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빈 소년 합창단은 2018년에도 한국에서의 신년음악회로 고전부터 대중음악까지 풍성한 레퍼토리와 순수한 합창으로 전국투어를 하며, 새해의 희망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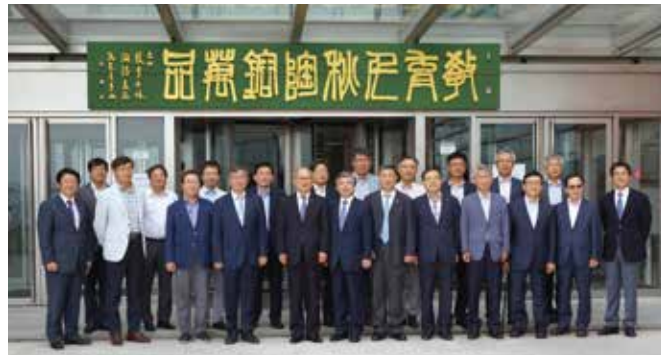
Music

Play-acting

LAW SCHOOL NEWS

법학전문대학원 대표단 방문 행사

지난 7월 14일(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대표단 방문 행사가 열렸다.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의 축사와 최봉철 법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교내 시설 투어를 비롯해 성균관대 법전원의 운영현황, 교육과정이 소개됐다. 아울러 교육부 이진석 국장 등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해 법전원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사법연수원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17일(목)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법연수원 측에서는 최재형 원장 외 유상재 수석교수, 기우중 총괄교수, 이경호 교수, 장우영 교수가 참석했으며, 법전원협의회 측에서는 이형규 이사장을 포함한 25개교 법전원장이 참석했다. 사법연수원과 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의 상호 협력 및 지원방안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8차 이사회 & 제41차 총회 개최

지난 8월 17일(목)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38차 이사회와 제41차 총회가 개최됐다. 총회에 앞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이형규 이사장 외 임원 10명이 참석해,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일정에 대한 검토 등 주요 결정 사항을 논의했다. 25개교 법전원장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2018년도 법전원 정부예산 진행 사항, 법전원 입학전형 및 장학금 지원제도 의견조치를 비롯해 법전원 주요 현안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 장관 간담회 열려

9월 20일(수) 법무부 과천청사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간담회가 열렸다. 원장단과 박상기 장관은 오찬에 앞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학점이수제로의 전환, 변시 지역 및 시험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현재 서울과 대전에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2019년부터 5대 권역(부산, 대구, 광주 추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내년 초에 실시되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대전 고사장 수용 인원도 200명 증원하기로 했다.



변시, 2019년부터 '5대 권역'으로 고사장 확대 추진

앞으로 서울과 대전 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고사장을 이처럼 전국 5대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치러지는 제7회 변호사시험의 대전 고사장 수용인원도 2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3개교 1000명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호사시험 고사장은 서울 건국대와 고려대, 대전 충남대 등 2개 지역에만 국한돼 있어 지방 로스쿨생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법무부는 최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사장 확대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출처: 법률신문 2017-09-2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원장

- 전공: 민법
-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 법학박사
- 現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 채권법센터 연구위원
- skmyoung@korea.ac.kr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원장

- 전공: 형법
- Bayerische – Julius – Maximilian Univ. Wuerzburg 법학사
- Johann Wolfgang Goethe University 법학석사/박사
- 前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 이사장
- hwwon@inha.ac.kr

[정정합니다]

로스쿨창 7-8월호 15p에 게재된 김별다비 경감/변호사의 소속을 하기와 같이 정정합니다.
인천 남부경찰서 김별다비 경감/변호사(전북대학교 로스쿨 27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실무수습 모집

- 실무수습 일정 : 2018년 1월 22일(월) ~ 2018년 2월 2일(금)
- 인 원 : 학교별 1명
- 제출서류 : 실무수습 지원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형식)
학교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 제출마감 : 11월 30일(목)까지
- 제출방법 : 개별학교 홈페이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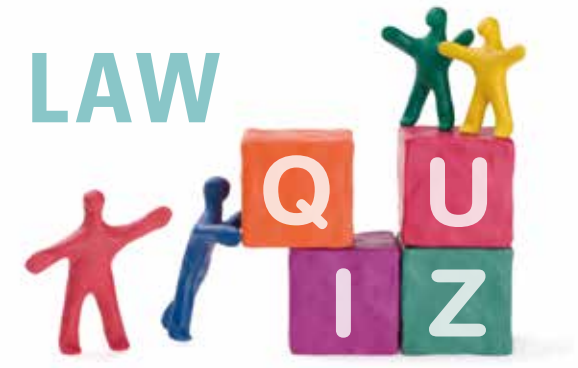
법무법인 한올 소속 변호사 채용

- 근무지역 : 부산
- 채용인원 : 1명
- 경력구분 : 경력무관
- 서류접수 기간: 2017년 10월 23일(월) ~ 11월 23일(목)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법무법인 고도 경력 변호사 채용

- 근무지역 : 서울(서초동)
- 모집인원 : 1명
- 경력구분 : 경력
- 업 무 : 송무, 자문 등
- 서류접수 기간 : 2017년 10월 23일(월) ~ 11월 30일(목)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선택형

1. 甲은 약 5000㎡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소유하면서 20kg들이 300상자의 사과를 수확하여 그 중 200상자를 사과판매상인 乙에 한 차례 위탁판매하였고, 나머지 100상자는 丙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하였다. 丙이 甲으로부터 매수한 사과 100상자를 해체하여 10kg들이 200상자로 다시 포장한 사과 중에서 53상자의 사과에 과실이 썩은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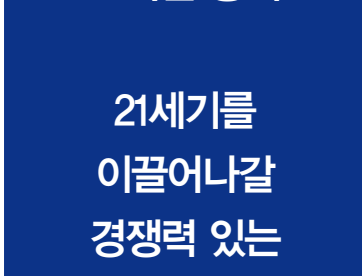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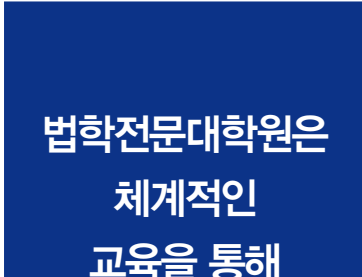
- ① 甲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 ② 甲은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 ③ 甲이 乙에게 위탁판매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甲과 乙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사과는 乙의 소유로 본다.
- ⑤ 상법상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즉시검사와 하자통지의무는 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이 소유한 X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乙을 속인 후(제1행위), 다시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채무의 담보로 X 부동산에 대하여 丙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제2행위). 이를 알고 화가 난 乙은 정오 무렵에 몰래 甲의 집에 들어가 甲이 丙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나와 자신의 집 안방에 두었다. 이 사실을 안 甲은 훔친 현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乙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乙로부터 쇼핑백을 돌려받았다(제3행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제1행위는 乙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만, 제2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乙에 대하여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乙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형사책임을 지고, 두 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甲의 제3행위는 乙에 대한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甲이 제1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자신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甲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⑤ 甲이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 기재하였더라도 항소심법원은 양형부당 이외의 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국민인 甲은 A대학교총장에게 최근 3년간 A대학교의 체육특기생 입학과정과 출석 및 학점관리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A대학교총장은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한다.
- ② 甲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③ A대학교가 국립대학교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인 경우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 ④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A대학교총장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⑤ 공개를 요청받은 A대학교총장은 당사자인 체육특기생인 자가 비공개요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특기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